

警和歌



[해제]

"<경화가>의 작자는 김주희(金周熙, 1860~1944)로 알려져 있다. 창작시기는 1929년 기사(己巳)년에 지어진 동학가사작품이다. 이 작품은 『용담유사(龍潭遺詞)』 권17에 실려 있으며, 현재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동학가사는 동학의 창시자인 교조 최제우(崔濟愚, 1824~1864)에 의해 처음으로 창작되었으며, 제3대 교조인 손병희, 경상북도 상주의 동학교인인 김주희 등이 지었다. 김주희의 동학가사는 40책 100여 편에 달한다. 최제우는 득도에서 포교에 이르는 과정이 가사에 나타나고 또한 현실비판과 인간평등, 개혁사상, 보국안민의 사상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김주희는 주역에 의한 현상풀이가 주류를 이루어 최제우의 동학가사와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용담유사』에서 ‘용담’은 최제우가 수련을 통해서 득도를 한 곳이다. 때문에 ‘용담’은 수운 최제우를 가리키는 말이고 ‘유사’는 남긴 말이라는 뜻이다. 본래 이 노래는 ‘유사팔편(遺詞八篇)’이라고 불리었는데,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누명을 쓰고 참형당한 뒤에 제2대 교조인 최시형에 의해 1881년 목판으로 간행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다. <경화가>는 국한문 혼용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 작품은 모두 1129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4음 4음보의 운율로 잘 이루어져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현들이 쓴 글을 많이 읽어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하자고 이른다. 이것이 바로 수심정기(修心正氣) 사상이다. 또 도(道)의 근원을 이루는 것을 연원(淵源)이라고 하고, 이 연원에서부터 전수되는 계통을 ‘도통(道通)이라고 하는데, 곧 연원도통(淵源道通) 사상이다. 이러한 수심정기 사상과 연원도통 사상을 바탕으로 19세기 중엽이라는 혼란의 시기에서 근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함축적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형식상 까다로운 제약이나 장치가 없이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이 작품은 주역에 의한 현상풀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원문]

경화가(警和歌)

警和歌卷之一

御化世上 저사롬덜 聖經賢傳 만이일거
 道之根本 차져보세 道之根本 차져니여
 알기만 알작시면 修心正氣 다시하야
 오는運數 때를알고 德을닥거 行하나니
 仔細보고 싯달으쇼 自古由來 師門聖德
 師師相受 흔다히도 道之根本 모르고서
 修心修德 하엿시며 만코만은 數多弟子
 修心修德 흔다히도 道之淵源 살퍼니여
 根本二字 모르고서 道德君子 되엿든가
 이일저일 料度하야 다시生覺 싯다르쇼
 이러므로 네로봣터 道也德也 말흔디도
 天地常經 그아니며 古今之統 안일넌가
 御化世上 만은사롬 이일저일 譬喩히서

나의敎訓 生覺하쇼 天地人 三才之德
 循環之理 그가온디 德되는바 一般이나
 第次之別 分明히서 天地節文 발커니네
 무섭더라 무섭더라 天地陰陽 五行之理
 至公無私 무섭더라 무섭더라 무섭더라
 聖人道德 무섭더라 河圖洛書 그림보고
 八卦定數 磨鍊히서 一一時中 그 가운데
 至公無私 무섭더라 나도또한 이世上에
 兩儀四像 稟氣히서 身體髮膚 바든몸이
 聖門受學 모르고서 昏濛世界 갓치석겨
 久沉苦海 지나드니 天運이 循環턴가
 台乃運數 回復턴가 萬古업는 無極大道
 이世上에 昌建되야 敎法敎道 하시라고
 萬民을 尼옴실제 天理時運 때를따라
 我東方에 우리스승 受命于天 먼저하스
 自古聖德 발커니여 時運世變 씩닷고서
 天道時中 베푸라셔 사롬사롬 敎訓키로
 어리석은 台乃사롬 世上사롬 흔디석겨
 숨결갓치 노든마음 一時에 다擺하고
 스승門을 차조들어 修心修德 하다가서
 이제와서 씩다르니 그도亦是 天定일세
 明天이 定흔運數 뉘라셔 拒逆할가
 至公無私 하늘님이 理致따라 法을定코
 禮節따라 第次之別 定하시니 作之師
 作之弟라 師門聖德 발커보니 天地度數
 다알너라 山上流水 그理致로 이와갓치
 되는바를 그러흔줄 모르고서 世上사롬
 고이하야 죽기限死 沮毀흔들 天理또한
 막을소냐 아셔라 너의사롬 勝己者
 시러할줄 웃지그리 아러쓰냐 다시生覺
 改過하라 改過遷善 아니하고 나의敎訓
 밋조느면 너의運數 可憐하다 不知何境
 되오리라 스승敎訓 어겨시니 未來之事
 갓힐소냐 未來之事 갓존히서 殃及其身
 흔다흔들 누구보고 怨望할가 世上理致
 이러므로 明天이 사롬닐때 前世修德
 夤緣따라 닥근디로 第次차려 師弟之分
 定히씨니 天定之數 免할소냐 免할슈

업실테니 師門聖德 어진敎訓 거울갓치
 닥거니여 順隨天理 가즈서라 至公無私
 하늘님이 天地反覆 그가온디 四時時中
 變復次로 사롬니고 道를닐때 聖人브툼
 먼저니스 以敎後生 時中일세 이일저일
 譬喩하여 理致二字 미뤄보니 天理차라
 聖人나고 聖人차라 道德나고 道德차라
 君子나서 時中時中 敎和하야 順理順數
 德行히네 自古理致 그런故로 어리석은
 台乃사롬 仔細아지 못거니와 大綱臍白
 說話하니 仔細살펴 比히보쇼 天地始判
 磨鍊後에 四正四維 定히노코 木德以王
 하시라고 聖人브툼 니옵실제 伏羲氏
 어진聖君 前世修德 業을차라 受命于天
 먼저하스 敎和人民 하옵실식 天地靈氣
 龍馬負圖 때를차라 出世하니 伏羲氏
 어진마음 龍馬負圖 살피시고 天地陰陽
 定흔數를 一一이 아신故로 八卦定數
 그러니여 以敎後生 傳히쓰니 사롬사롬
 서루傳히 次次次次 徵驗하니 不失時中
 안일년가 天道時運 次次발거 午丁時가
 當하오미 天道陽明 造化차라 唐堯虞舜
 먼저나스 克明峻德 하여니여 和流四海
 하신故로 後生이 닐으기를 堯舜之世
 조타하고 不忘千秋 頌德일네 그後로
 禹湯文武 이어나서 道統淵源 발켜씨되
 그中에 周文王之 어진道德 가장더욱
 발것도다 太昊伏羲 先天八卦 龍馬負圖
 살펴보고 夏禹氏 그린八卦 龜尾洛書
 後天數 살피신後 乾坤之道 定흔理致
 先後天을 磨鍊하야 八八六十 四卦定코
 三百八十 四爻뵈쳐 卦爻象象 배푸라서
 一一成出 文卷히서 周易이라 일흠하고
 以敎後生 傳히시니 文王聖德 至極하다
 사롬사롬 만은사롬 學而時習 날노하며
 서루서루 勸學트니 天道夕陽 때가온가
 輪回時運 돌너쓰가 빗긴벵 夕陽運을
 孔夫子가 바드신가 때運數 比히보니

天理따라 陰氣漸漸 極盛하니 夕陽의
 가는日光 웃지主張 되올손가 때를따라
 그런故로 孔夫子之 道德으로 不得其位
 하옵시고 時運世變 氣運따라 轍環天下
 하옵시며 先天之數 빗겨노코 後天之數
 빗겨닐제 韋編三絶 工夫하스 周易贊頌
 하옵시고 自古聖德 거울할제 祖述堯舜
 하옵시며 憲章文武 하여니어 繼往聖開來學
 하신故로 孔夫子之 盛德이 反有賢於
 堯舜이라 至于今 닐너나니 그러하나
 夫子教訓 그時節에 門下弟子 三千之徒
 스승教訓 效則히서 一一習道 하지마는
 身通六藝 멋멋친고 七十二人 道統히서
 스승道德 讚誦하고 先聖道德 발커시되
 顏子曾子 道之淵源 宗統바다 나는後生
 教育터니 子思孟子 그때時運 이어나서
 先聖道法 거울하여 스승教訓 施行타가
 道統淵源 自然되야 至今까지 遺傳하나
 天地度數 相助之理 晝夜相代 理致잇서
 日精之道 다히쓴가 月精之道 回復時ㄴ가
 天道神聖 마칠쌌가 地道功巧 盛旺時ㄴ가
 戌亥之運 祭始皇이 焚詩書 하온後로
 聖人道德 寢微하고 異端功巧 이러나서
 서로서로 崇尚하니 그도亦是 때運數라
 때運數 氣運따라 月惟初生 西天되야
 次次次次 始明하나 後天八卦 龜尾洛書
 應하여서 逆數之行 的實하다 그일저일
 살퍼니어 理致二字 미뤄보니 天地日月
 造化따라 世間風俗 變復일세 迭代之數
 그런故로 太古天皇 順數八卦 時中時에
 陰陽造化 五行精氣 陽氣모와 日光되고
 陰氣모와 月光되야 順數之理 日光이
 主張기로 日光따라 神聖나서 天地度數
 발커니어 道德이라 일흠하고 許多만은
 世上사름 가랏치기 爲主히서 順數天理
 時中하여 道統淵源 相傳트니 그運數가
 다히든가 夏禹氏 그린八卦 逆數運이
 回復되야 月光이 主張헉가 때運數

氣運차라 西天에 道가나서 佛仙이라
 일흥하고 釋伽老子 스승되야 時中차라
 施行히서 功巧之理 그가온디 淵源道統
 발켜니여 相傳授受 傳히와서 至今까지
 彌留하니 釋伽老子 말할진디 逆數之運
 그가온디 月光度數 氣運차라 時中하니
 月中陰精 大確일세 그러나 十五夜
 밝은달이 秋天의 精神모와 午正의
 두렷하미 世界가 光明되야 人心이
 俱順일네 그때가 언의싼고 唐宋之世
 안일년가 唐宋때 도라와서 後天之數
 極盛하여 峩運數 발키라고 諸賢이
 輩出할식 程朱子 먼저나스 自古聖人
 道統淵源 四書五經 許多書冊 卽嘗受學
 工夫하와 熟讀嘗味 하다가서 一朝恍然
 大悟하스 先聖道法 贊하실식 四書五經
 註를니스 발근道德 더발키여 사름사름
 勸學하니 淵源道統 안이신가 그러그러
 施行트니 月惟漸衰 次次되니 光明之氣
 完全할가 그後로 月出東方 峩가되니
 大明天子 朱元璋이 그運數를 바다나서
 入於南京 卽位하여 仁義禮智 조타하며
 五倫三綱 말을하여 治民治政 하였시되
 天時또흔 峩가잇서 許多世上 만든사름
 學而時習 혼다하되 功巧之術 조와하고
 元亨利貞 몰나시니 道德君子 잇슬손가
 道德君子 안이나니 淵源道統 조흔法을
 언의누가 발키실고 그러그러 時中차라
 逆數之運 甲子之理 戌亥運이 거의된가
 順數之運 다시와서 六十甲子 그가온디
 子丑運이 當히온가 天一生水 坎中連
 壬子水가 氣勢른가 方位조쳐 時中次로
 敎가날제 天主教라 일흥하고 예슈가
 먼저나서 이생일 던져두고 저生事를
 잘닥거서 天主堂에 간다하고 사름사름
 가랏쳐서 遍滿天下 거의되니 웃지天時
 안일년가 一一窮究 살펴보니 儒道佛道
 屢千年에 運이亦是 다히든가 도로先天

回復되니 无極之運 안일년가 子方水氣
 氣運사라 天主教로 勸學하며 黑衣黑服
 主張되야 開明이라 일흥하고 蕃盛치만
 그리되는 때運數를 아는사름 몇몇친고
 天一生水 그가온되 水生木運 쏘잇서서
 輪回時運 次次오니 水氣運數 每樣일싸
 未久不遠 안일년가 天時소흔 때를사라
 木德以王 하여니여 明明其德 하시라고
 聖運聖德 발거오니 震木星이 乘時로다
 明天이 道德仁義 베푸라고 我東方에
 聖人닐때 无極之運 그가온되 無往不復
 그理致를 水雲先生 먼저바더 自古聖人
 傳授心法 淵源道統 발커니여 一一受學
 勤苦타가 天助地應 때를타서 自然心靈
 大覺되야 易卦定數 살피시고 三代敬天
 조흔禮節 一一效則 거울하야 法을定코
 禮를미즈 사름사름 勸學할제 二十一字
 呪文지어 傳授心法 삼어두고 至誠敬天
 獻誠法은 孝行二字 뵈쳐두고 先天後天
 易卦定數 一一詳考 거울히서 先王古禮
 일치말고 다시天心 回復하여 時中사라
 行하즈고 賦也興也 記錄할제 말노하며
 글노써서 一一成出 文卷되니 聖經歌辭
 分明하다 水雲先生 논흔道德 어진마음
 天地時運 造化사라 教法教道 하든이만
 木德旺運 未滿故로 八陰世界 亂動되고
 玄武之氣 水氣氣運 남은故로 그運數
 氣運사라 世上風俗 고이키로 陰害者가
 數多히서 甲子風波 보신後에 天時를
 順從次로 世念을 이지시고 隱逸靑山
 하옵시고 門下弟子 數多中에 法軒은
 教法教道 힘을쓰나 世界소흔 昏濛時라
 오는運數 모르고서 各自爲心 그사름덜
 말노듯고 入道히서 口으로 呪文일너
 橫說豎說 하는말이 나도得道 너도得道
 孟嘗君의 俠客禮로 氣勢사라 조와하며
 스승道法 무어신지 教訓施行 다바리고
 제망되로 亂動흔들 天理光明 조흔運數

때가아즉 未及하니 法軒인들 웃지하리
 하는道理 바이업서 世上陰氣 싸잡퍼서
 甲午風波 적근後에 不幸運終 하여잇고
 아모아모는 時勢따라 如此如此 處下하고
 靑林先生 則天地 陰陽五行 精氣
 三陽七德 조흔運數 受命于天 먼저하스
 스승敎訓 奉命하고 淵源道統 발커니여
 敎民禮樂 하자하고 以待其時 때기되려
 隱居山林 四十年에 師訓聖德 거울히여
 至誠敬天 獻誠하고 安心正氣 修身하스
 自古聖人 道統法과 師師相受 傳授心法
 一一明察 하옵시고 天地圖來 無窮其理
 胷海에 품어두고 日月精氣 造化바다
 光明之德 베푸라고 스승敎訓 施行次로
 敎法敎道 하시알제 天地節文 禮를발커
 때를따라 傳授心法 다시定코 先天後天
 數質하스 易卦定數 살피신後 天道回復
 다시되야 木德以旺 때를알고 龍馬負圖
 다시모서 春末夏初 運數뵈쳐 사름사름
 일씩시고 스승敎訓 넘흔道德 大全歌辭
 傳은文閱 말도亦是 無窮하고 글도亦是
 無窮흔디 無窮흔 그理致를 細細明察
 하여니여 一一讚誦 하옵시되 明明其德
 더발키여 글을지며 말을히서 天理故郷
 나타니여 細細成出 文卷지스 敎法敎道
 定히노니 도로聖經 分明하다 靑林先生
 지은文閱 다시더욱 발거잇네 水雲先生
 지은文閱 大全歌辭 理致미뤄 自古聖人
 道統淵源 天理따라 定흔運數 거울갓치
 발키시고 天地日月 造化살펴 五行精氣
 말근氣運 旺生休囚 그가온디 相生之理
 理致미뤄 五倫三綱 第次分別 節文발커
 傳하시고 春夏秋冬 四時미뤄 仁義禮智
 道德으로 人和之端 베푸러서 學不厭을
 爲主삼고 敎不倦을 힘을씨게 定式하여
 傳하시고 由來聖人 敎訓法을 效則하스
 心學法을 磨鍊하여 呪文지어 傳授히서
 人皆爲之 心學하여 安心正氣 修身하게

발켜두고 先王古禮 긋게직허 오는사름
 曉諭히서 輪回時運 알게하니 鳥乙矢口
 鳥乙矢口 靑林先生 지은文閱 水雲先生
 늙흔道德 大全歌辭 贊하옵서 天理節文
 빛나씨니 無窮無窮 鳥乙矢口 廣明大濟
 뉘알소냐 廣明天地 禮義로다 나도또흔
 이世上에 스승門에 受學하여 弟子라고
 일흠하고 心工한다 말을하며 屢年勤苦
 일커르되 道와德이 무어신지 天動인지
 地動인지 東西南北 分別업시 天地盛運
 니슬이여 남이하니 나도흔다 그分數에
 比히씨니 그런昏夢 쏘잇는가 그러그러
 하다가서 兩位先生 教訓말씀 一一施行
 操心타가 再思心定 다시하여 兩位先生
 지은文閱 熟讀嘗味 하즈하고 至誠으로
 敬天하며 一心으로 工夫하와 거울갓치
 발키라다 甬결갓흔 台乃所見 如夢如覺
 식다르니 天定之數 分明하다 하늘님이
 定하시니 無可柰라 할길업다 鳥乙矢口
 鳥乙矢口 台乃身命 鳥乙矢口 聖人門下
 受學하여 一心으로 工夫타가 台乃身命
 鳥乙矢口 이제와서 식다르니 自古聖人
 道統淵源 水雲先生 的實하고 水雲先生
 道統淵源 靑林先生 分明하스 淵源道統
 次次되니 矢口矢口 鳥乙矢口 卅運數
 鳥乙矢口 八陰은 씨러지고 三陽은
 발거오니 淵源道統 다시살펴 安心正氣
 修身하소 御化世上 만은道儒 仔細生覺
 식달으소 一門下之 弟子로서 安心正氣
 工夫하여 淵源道統 발키자고 屢年勤苦
 하지마는 道統淵源 理致미뤄 식다르니
 몇몇친고 仔細살펴 料度하소 自古聖人
 말흔되도 天理사라 聖어나스 天地度數
 먼저알고 順隨天理 하즈하고 人事所爲
 베푸라서 사름사름 教育할제 道德이라
 일흠하고 天理節文 발켜니여 글을지며
 말을히서 一一記錄 成卷하스 玄機사라
 布而教之 하실때에 師師相授 禮를定코

相傳授受 傳히여서 사름사름 가랏치되
 學而時習 하는사름 文闕보고 맘을비워
 文闕理致 뜻슬알고 秋毫一釐 어기잔코
 文闕되로 行흔사름 順隨天理 自然되니
 도로聖人 아니시며 道德君子 아니신가
 理致二字 미뤄보니 天地度數 발근禮節
 人事所爲 記錄흔바 文闕이 淵源이오
 時中行而 道德일세 그런故로 道之理致
 씩달은이 文闕보고 推尊히서 聖經이라
 일흥하고 世上사름 勸學하며 그文闕
 지은사름 推尊하여 일커르되 聖人出世
 하섯다고 하늘갓치 우를너서 師弟之誼
 발커니여 先生之禮 定히노코 父母갓치
 섬기나니 그런故로 天地度數 먼저알고
 文卷에다 記錄하여 教法教道 하온사름
 文闕理致 氣運싸라 先聖되고 그文闕의
 受學하여 學而知之 하온사름 先聖이어
 後聖일세 後聖이라 하는사름 무얼보고
 世上사름 後聖이라 일흥하노 다른理致
 바이업다 先生文闕 조흔道德 學而時習
 하다가서 道와德을 씩닷고서 先聖文闕
 贊하여서 世上사름 날씩울제 말노하며
 글노써서 先聖의 어진道德 支分節解
 발키나니 도로成出 文卷일세 師門聖德
 學習者들 이글저글 살퍼니여 道德文闕
 工夫타가 道統淵源 식로나스 明明其德
 하신다고 서루서루 말을하며 그文闕을
 推尊하여 聖經이라 일흥하고 사름마도
 勸學하니 元亨利貞 理致미뤄 天理時中
 닛타니서 지은文闕 淵源일세 許多만은
 世上사름 사름對히 淵源이며 일흥보고
 道德이며 貌樣보고 先生이며 權勢로써
 聖人이며 奸巧로써 君子될싸 太古天地
 始判後에 四正四維 定히노코 循環之理
 氣運싸라 世上事가 그런故로 만코만은
 사름中에 聖人君子 싸로잇고 許多만은
 書冊中에 聖經賢傳 싸로잇서 淵源道統
 말을히서 至今까지 傳히나니 世上理致

그러기로 自古聖人 만이나서 淵源道統
말히씨되 四書三經 淵源일세 天理時中
때를싸라 四書三經 지은文闕 相傳授受
教育훈바 업거디면 무얼노써 憑據히서
聖人이라 推尊하며 先生이라 말을히여
道德二字 커러서 淵源二字 말할손가
其然不然 譬喩히서 一一生覺 식다르니
世上書冊 만타하되 修道修身 하는사름
古今聖人 지은文闕 文闕마도 淵源일세
淵源살펴 道統히서 스승恭敬 하여서라
스승恭敬 하조하니 남의弟子 되온사름
禮節인들 업실소며 스승마음 廣愛하스
가랏치기 爲主시니 스승마음 效則하여
눅흔道德 빛는文闕 사름사름 勸學하여
布德天下 그가온디 사름마도 君子되면
스승道德 빛날테니 스승恭敬 그아니며
順隨天理 안일손가 水德以王 此世上에
無往不復 그運數를 水雲先生 먼저바다
自古聖人 道統法 淵源살펴 理致알고
大全歌辭 글을지어 教而行之 傳하시고
靑林先生 受學하스 스승教訓 奉承하와
大全歌辭 贊은文闕 明明其德 하여니여
사름사름 教訓하니 一一生覺 하여보세
自古由來 次次次次 내려오며 스승스승
傳은文闕 文闕마도 次次次次 淵源道統
傳히엿네 道之理致 그러하니 文闕싸라
淵源定코 淵源싸라 道德빅고 道德싸라
스승定히 道之根源 발켜보세 道之根源
그러컨만 만코만은 數多道儒 그런理致
아는道儒 몇몇친고 아는道儒 아지마는
그런理致 모른道儒 그런昏夢 쏘잇는가
昏夢世界 저道儒들 웃지아니 익달할가
스승門에 受學하여 修煉誠心 工夫힘써
淵源道統 발킨다고 말은비록 그러하나
淵源이 무어신지 頭緒分別 모르고서
氣勢보고 推尊하기 奸巧보고 讚誦하기
陰兇싸라 福祿빌기 阿黨흔디 맘굽히기
어진사름 미워하여 無根說話 지어닝기

兇暴之心 품어두고 모든親舊 誘引하기
 恩怨업시 지닌사름 그中에 싸잡혀서
 서루서루 嫌疑잇기 天定之數 제福祿을
 안직히고 농의福祿 貪慾하기 修道修身
 工夫업시 自稱淵源 藉勢하고 眼下無人
 崇尚하기 義理二字 다바리고 背恩忘德
 일을삼기 道德門에 相關업는 功名富貴
 말을히서 愚昧之人 誘引하기 스승敎訓
 傳은文闕 道德仁義 뜻모르고 自行自止
 날노하여 사름사름 만은사름 오는運數
 압길막기 放恣은말 품어두고 되는되로
 自尊하니 怠하다 怠하다 그런사름
 怠하다 道儒라고 일흥하며 그와갓치
 不測하니 웃지그리 昏夢인고 怠하다
 怠하다 淵源淵源 말을하나 사름몸이
 淵源이며 道統道統 말을하나 사름몸이
 道統인가 그럴사름 잊지마는 만코만은
 世上사름 사름마도 다그러며 數多書冊
 만타흔들 書冊마도 聖經일싸 道之理致
 天理사라 定은運數 이와갓치 발선마는
 웃지그리 昏夢인고 다시싱각 씩다러서
 淵源道統 仔細살펴 改過遷善 하여서루
 스승恭敬 하여서라 自古由來 此히바도
 淵源업는 聖人음고 道德업는 君子음디
 怠하다 怠하다 世上風俗 怠하다
 그도亦是 時運인가 十二諸國 恠疾運數
 다시開闢 새가오니 새를사라 陰氣좃쳐
 衰하라고 그런사름 그러흔가 人心風俗
 恠異하다 一門下之 弟子로서 日月갓치
 밝은道德 修道修身 아니하고 웃지그리
 埋沒은고 各各明運 分明하다 그런사름
 그러하나 어진사름 잊거들낭 道統淵源
 仔細살펴 安心安道 修身하소 나의敎訓
 헛말인가 仔細生覺 씩다러서 스승敎訓
 발켜니여 安心安道 修身하면 淸薄은
 이世上에 許多은 無數疾病 勿藥自效
 될거시니 地上神仙 그안인가 스승스승
 淵源차져 敎訓되로 行은사름 이와갓치

되련이와 그리施行 안인사름 닥근道德
 업서시니 不知何境 免할손가 九變九復
 此天地에 時運世變 料度하여 오는運數
 數質하니 다시開闢 不遠이라 天一生水
 漲溢하니 乾亥亦是 漲溢일세 乾水生水
 漲溢되니 水中世界 그아니며 震方에
 도든日光 次次次次 발거오나 八陰의
 남은陰氣 식벽안기 아참이슬 尤甚흔디
 虛靈之氣 魑魅魍魎 書出하나 書出魑魎
 계뇌아리 魑魎之鬼 恠異하다 陰氣로써
 싱긴몸이 日光消息 모르고서 식벽안기
 雲霧中에 남은陰氣 氣運따라 사름사름
 속이라고 죽기로써 亂動하니 속을사름
 잊지만은 道德君子 속일손가 道德君子
 못속이고 제氣運만 쓰러져서 痕跡업시
 되지만은 修道修身 못흔사름 그陰氣에
 쓰잡혀서 거의거의 속을테니 草長衣沾
 그안인가 奇險하다 奇險하다 오는運數
 奇險하다 水中世界 되는때에 恠疾惡疾
 날어나고 陰氣邪氣 並侵하여 頭緒업시
 길을막고 風塵塵埃 날어나서 人心昏夢
 시길테니 昏夢天地 그안인가 昏夢天地
 그運數를 언의누가 잘살피여 日月精氣
 造化따라 失數업시 免히볼까 免할사름
 만치마는 道德업시 免할손가 仁者無敵
 道德닥거 道德으로 免할테니 나의敎訓
 疑心말고 스승스승 淵源차져 敎訓되로
 施行히서 安心正氣 修身하라 安心正氣
 修身하면 天助地應 感應하스 地上神仙
 되오리라 地上神仙 되거되면 好作仙緣
 그안인가 紛紛天下 擾亂흔디 好作仙緣
 되얏시니 安期生赤 松子を 부러할가
 이와갓치 되올運數 아는사름 몇몇친고
 아는사름 알아써든 모른사름 勸學히서
 스승敎訓 거울하여 仁者無敵 닥게하소
 仁者無敵 늙흔道德 사름마도 다닥그면
 堯舜世界 다를손가 堯舜世界 一般되면
 스승스승 조흐련만 그런運數 모르고서

妖惡한 저사롬들 陰兇奸巧 兼하여서
 欺心欺天 하너라고 無識道統 自矜하니
 可笑絶唱 안일년가 나느都是 너의所見
 모를너라 肝經이 不實히서 쓸기업서
 그러흔가 五行精氣 五腸업서 그러흔가
 虛慾이 눈을가려 귀가막혀 그러흔가
 陰陽造化 바든몸이 陽氣는 쓰러지고
 陰氣만 남겨잇서 失真되야 그러흔가
 나느都是 모를너라 다시生覺 씩다러서
 無識道統 自矜마라 無識道統 自矜타가
 未來之事 갓존하면 너의運數 可憐하여
 不知何境 될거시니 自作之孽 네아니냐
 이달하다 이달하다 너의運數 그리될줄
 모르고서 스승敎訓 다어기고 私邪慾心
 못이기여 제맘되로 行흔사롬 쏘흔亦是
 이달하다 쓸디업는 富貴에다 쫓슬두고
 行實빌줄 몰나씨니 道德二字 웃지아리
 道德二字 몰나씨니 스승弟子 무어신고
 이달하다 이달하다 너의사롬 이달하다
 師門聖德 工夫하여 道德二字 발킨다고
 말은비록 그러하나 邪氣虛慾 못이기여
 스승道德 더럽히니 亂道者가 네아니며
 道統淵源 모르고서 스승팔며 淵源팔어
 自稱淵源 藉勢히서 사롬사롬 속여씨니
 蚊將軍이 네아니며 스승스승 定흔禮節
 天地節文 應하여서 定흔반디 一一施行
 아니하고 네맘되로 行히씨니 亂法者가
 네아니냐 亂法亂道 하는사롬 나느都是
 모를너라 自古由來 傳흔말에 夫子之道로
 反害夫子라 傳흔말이 至今까지 잇지마는
 古今理致 一般이니 그런理致 업실손가
 네로뵈터 好事多魔 理致잇서 그런理致
 잇는빈니 賢淑한 諸君子는 仔細살펴
 가즈셔라 가즈셔라 가즈셔라 元亨利貞
 가즈셔라 天地反覆 此世上의 만코만은
 世上사롬 盛衰之運 不同故로 災運數
 奇險하여 蚊將軍도 만을게요 亂道者도
 만을게니 前後左右 잘살피여 元亨利貞

가즈셔라 自古聖門 살피니여 道統淵源
 본다히도 私慾으로 淵源되며 陰兇으로
 道統히다 네로쫓차 修德門에 富貴는
 不可考라 그런故로 孔門弟子 三千中에
 顔子또한 極貧하스 一簞食 一瓢飲을
 免하지 못하스되 修道修身 곳게직혀
 不改其樂 하신故로 어진마음 呑흔道德
 天理따라 成功되스 남의스승 自然되야
 至今까지 傳히오니 그런일을 본다히도
 修道修身 하느사름 富貴에다 뜻슬들스
 슬씩업시 世間風俗 쓰잡퍼셔 富貴功名
 뜻슬들 하느님이 사름닐씩 四柱八字
 定흔바를 네가다시 어긋소냐 어긋는슈
 업실게요 곳치는슈 업실게니 사름사름
 만은사름 나의敎訓 生覺하여 다시씩쳐
 定心히셔 天上富貴 닥가보세 하늘님이
 쥬신富貴 사름사름 萬은사름 다갓치
 쥬옵신바 好生之心 아니신가 好生之心
 分明하니 心多忘失 子乃사름 久沉苦海
 그만놓고 好生之心 다시차져 至誠으로
 닥거되면 以復其初 自然되여 自古聖神
 道統淵源 天理節文 傳흔文闕 보는되로
 다알게요 五倫三綱 禮義廉恥 거울갓치
 다시발켜 明明其德 하오리니 仁義禮智
 못行할가 仁義禮智 次序알고 失數업시
 行하오면 道德君子 아니신가 道德君子
 되거되면 天上富貴 그아닌가 與天地
 合其德與 日月合其 明與鬼神 合其吉凶
 無窮造化 呑흔道德 芻海에 품어두고
 任意用之 풀어니여 사름사름 가랏쳐셔
 順隨天理 하거되면 淵源道統 아니신가
 淵源道統 되거되면 스승二字 呑하잇네
 스승二字 呑하씨니 聖人聖字 아니신가
 聖人聖字 바탕되니 限量업는 그道德을
 無窮無窮 傳히여셔 與天地로 相存되니
 그런富貴 다시잇나 하늘님이 사름사름
 쥬신富貴 이와갓치 크건마는 世上사름
 恠異하다 明天이 쥬신富貴 元亨利貞

큰富貴는 사롬마도 마다하고 私邪慾心
 못이기여 世間富貴 貪하다가 天性之稟
 다일코셔 自作之孽 지은罪로 서루서루
 嫌疑미져 殃及其身 하는구나 익달하다
 익달하다 그런사롬 익달하다 聖人門의
 受學키는 스승敎訓 거울하여 맘을빈고
 實빅셔 어진君子 되랴히지 그른마음
 改過안코 되는디로 亂雜히셔 草露갓흔
 一時富貴 貪하즈고 聖人門의 受學히느
 나느都是 모를너라 時運世變 말흔디도
 十二諸國 恠疾運數 天下人心 共動되야
 恠疾惡疾 날어나서 다시開闢 할터이니
 子乃사롬 生覺하소 웃지하여 그運數를
 謀免하고 살아날가 살아날바 生覺다
 못하거든 어진先生 차즈들어 道德仁義
 힘을씨소 道德仁義 힘써빅면 仁者無敵
 造化로써 天理干涉 自然되야 無爲而化
 謀免히셔 地上神仙 되오리니 그만劫運
 念慮할가 그는또흔 그러하나 知覺업다
 知覺업다 台乃사롬 知覺업다 蚊將軍白
 晝大賊 잇슬줄을 丁寧이 아지마는
 輪回時運 그러하니 旣運數를 어이하리
 旣運數 그러하나 그런運數 던져두고
 天地日月 造化사라 廣明之德 베푸라셔
 次次次次 가랴치면 禽獸갓흔 世上사롬
 얼푸시 썩다러셔 無往不復 다될테니
 天佑神助 아니시며 無爲而化 그안인가
 循環之理 그가온디 輪回時運 그러하니
 賢淑흔 諸君덜은 疑訝之心 두지말고
 天理사라 施行히셔 次次次次 가즈셔라
 그는또흔 그러하나 人心風俗 살펴보니
 旣運數 可觀일세 許多만은 世上사롬
 다各各 일흠하되 스승門의 受學하여
 改過遷善 험다하고 말은비록 그 러하나
 道之根源 모르고셔 頭緒업시 가다가셔
 前後左右 살피즌코 草上之風 거의되니
 익달하다 그런사롬 스승敎訓 傳흔文閣
 修心正氣 하여닉여 淵源道統 하라하고

一一曉諭 하여썤만 무얼보고 修道히나
 이달하다 이달하다 그런사롬 이달하다
 屢年勤苦 하다가서 草上之風 되단말가
 草上之風 되는사롬 그도亦是 運數지만
 運數로만 전여밀고 살피죠크 되올손가
 그런故로 古聖人 닐은말슴 詩傳에
 伐柯章을 先生계서 譬喩하스 닐은말슴
 生覺고 生覺하면 草上之風 잇슬손가
 그런故로 世上事가 難之而有 易하고
 易之而難 이거만 그런理致 모르고서
 살피죠크 가다가서 草上之風 되엿시니
 自作之孽 그 안인가 自作之孽 되엿시니
 누구보고 怨望할가 怨望할곳 업지마는
 當初에 먹은生覺 스승門의 受學히서
 仁義道德 발켜니여 道德君子 되라히지
 살피죠크 深量업시 가다가서 草上之風
 되라쓰가 理致二字 그러하니 다시生覺
 씻다라서 道之淵源 발켜니여 조흔運數
 밧게하소 나의敎訓 違棄하고 深量업시
 가다가는 未來之事 갓죠힌서 不知何境
 되오리니 부딤生覺 씻다라서 順隨天理
 時中하소 이와갓치 勸學지만 만코만은
 道儒中에 몇몇사롬 씻다라서 草上之風
 버셔날가 그도亦是 運數지만 運數만
 밧지말고 修心正氣 團束하고 元亨利貞
 잘발키여 道之淵源 일치마소 道之淵源
 일찬으면 先生뵈기 쉬울테니 부딤부딤
 生覺히서 許多만은 道儒中에 亂法者도
 만흘게요 草上之風 만흘게니 一一明察
 하여니여 그運數에 犯치말고 道之淵源
 차져니여 安心正氣 受學히서 淵源道統
 하여보세

[현대역]

경화가(警和歌)

경화가

어화세상(御化世上) 저사람들 성경현전(聖經賢傳)1 많이 읽어
 도지근본(道之根本) 찾아보세 도지근본(道之根本) 찾아내어
 알기만 알작시면 수심정기(修心正氣)2 다시하여
 오는운수(運數) 때를 알고 덕(德)을 닦아 행(行)하나니
 자세(仔細)3보고 깨달으소서 자고유래(自古由來)4 사문성덕(師門聖德)5
 사사상수(師師相受)6 한다해도 도지근본(道之根本) 모르고서
 수심수덕(修心修德) 하였으며 많고많은 수다제자(數多弟子)
 수심수덕(修心修德) 한다해도 도지연원(道之淵源)7 살펴내어
 근본이자(根本二字) 모르고서 도덕군자(道德君子)8 되었던가
 이일저일 요도(料度)9하여 다시생각(生覺) 깨달으소서
 이러므로 예로부터 도야덕야(道也德也)10 말한다해도
 천지상경(天地常經)11 그 아니며 고금지통(古今之統)12 아닐런가
 어화세상(御化世上) 많은 사람 이일저일 비유(譬喻)해서
 나의교훈(教訓) 생각(生覺)하소 천지인(天地人) 삼재지덕(三才之德)13
 순환지리(循環之理)14 그 가운데 덕(德)되는바 일반(一般)이나
 제차지별(第次之別) 분명(分明)해서 천지절문(天地節文)15 밝혀내네
 무섭더라 무섭더라 천지음양(天地陰陽) 오행지리(五行之理)16
 지공무사(至公無私)17 무섭더라 무섭더라 무섭더라
 성인도덕(聖人道德) 무섭더라 하도낙서(河圖洛書)18 그림보고

 팔괘정수(八卦定數)19 마련(磨鍊)해서 일일시중(一一時中)20 그 가운데
 지공무사(至公無私) 무섭더라 나도또한 이세상(世上)에
 양의사상(兩儀四像)21 품기(稟氣)22해서 신체발부(身體髮膚) 받은몸이
 성문수학(聖門受學) 모르고서 혼몽세계(昏濛世界)23 같이섞여
 구침고해(久沉苦海)24 지나드니 천운(天運)이 순환(循環)턴가
 태내운수(台乃運數) 회복(回復)턴가 만고(萬古)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25
 이세상(世上)에 창건(昌建)되야 교법교도(教法教道) 하시라고
 만민(萬民)을 닦음실제 천리시운(天理時運)26 때를 따라
 아동방(我東方)에 우리스승 수명우천(受命于天)27 먼저하사
 자고성덕(自古聖德) 밝혀내어 시운세변(時運世變) 깨달고저
 천도시중(天道時中) 베풀어서 사람사람 교훈(教訓)키로

어리석은 태내(台乃)사람 세상(世上)사람 한데섞여
 꿈결같이 놀던마음 일시(一時)에 다擺하고
 스승문(門)을 찾아들어 수심수덕(修心修德) 하다가서
 이제와서 깨달으니 그도역시(亦是) 천정(天定)28일세
 명천(明天)이 정(定)한운수(運數) 뉘라서 거역(拒逆)할까
 지공무사(至公無私) 하느님이 이치(理致)따라 법(法)을정(定)하고
 예절(禮節)따라 재차지별(第次之別) 정(定)하시니 작지사(作之師)29
 작지제(作之弟)30라 사문성덕(師門聖德)31 밝혀보니 천지도수(天地度數)32
 다알러라 산상류수(山上流水) 그이치(理致)로 이와 같이
 되는 바를 그러한 줄 모르고서 세상(世上)사람
 고이하여 죽기한사(限死)33 저훼(沮毀)34한들 천리(天理)또한
 막을소냐 아서라 너의사람 승이자(勝己者)
 싫어할줄 어찌그리 알았드냐 다시생각(生覺)
 개과(改過)하라 개과천선(改過遷善) 아니하고 나의교훈(教訓)
 믿자드면 너의 운수(運數) 가련(可憐)하다 부지하경(不知何境)35
 되오리라 스승교훈(教訓) 어겼으니 말래지사(未來之事)36
 같을소냐 말래지사(未來之事) 같잖아서 앙급기신(殃及其身)
 한다한들 누구보고 원망(怨望)할까 세상이치(世上理致)
 이러므로 명천(明天)이 사람낼 때 전세수덕(前世修德)
 인연(夤緣)따라 닦은 대로 재차(第次)차려 사제지분(師弟之分)
 정(定)했으니 천정지수(天定之數)37 면(免)할소냐 면(免)할 수
 없을테니 사문성덕(師門聖德) 어진교훈(教訓) 거울같이
 닦아내어 순수천리(順隨天理) 가즈셔라 지공무사(至公無私)
 하느님이 천리반복(天地反覆) 그가운데 사시시중(四時時中)
 변복차(變復次)38로 사람내고 도(道)를 낼 때 성인(聖人)부터
 먼저내서 이교후생(以教後生)39 시중(時中)40일세 이일저일
 비유(譬喩)하여 이치이자(理致二字) 미뤄보니 천리(天理)따라
 성인(聖人)나고 성인(聖人)따라 도덕(道德)나고 도덕(道德)따라
 군자(君子)나서 시중시중(時中時中) 교화(教和)하여 순리순수(順理順數)
 덕행(德行)했네 자고이치(自古理致) 그런고(故)로 어리석은
 태내(台乃)사람 자세(仔細)알지 못거니와 대강조백(大綱絜白)41
 설화(說話)하니 자세(仔細)살펴 비(比)해보소 천지시판(天地始判)42
 마련후(磨鍊後)에 사정사유(四正四維)43 정(定)해놓고 목덕이왕(木德以王)44
 하시라고 성인(聖人)부터 내옴 실 제 복희씨(伏羲氏)
 어진성군(聖君) 전세수덕(前世修德) 업(業)을 따라 수명우천(受命于天)
 먼저하사 교화인민(教和人民)45 하옵실세 천지령기(天地靈氣)
 용마부도(龍馬負圖)46 때를 따라 출세(出世)하니 복희씨(伏羲氏)
 어진마음 용마부도(龍馬負圖) 살피시고 천지음양(天地陰陽)

정(定)한수(數)를 일일(一一)이 아신고(故)로 팔괘정수(八卦定數)47
 그러내어 이교후생(以教後生) 전(傳)해드니 사람사람
 서로전(傳)해 차차차차(次次次次) 징험(徵驗)하니 불실시중(不失時中)
 아닐런가 천도시운(天道時運) 차차(次次)밝어 오정시(午丁時)48가
 당(當)하오매 천도양명(天道陽明)49 조화(造化)따라 당요우순(唐堯虞舜)50
 먼저나서 극명준덕(克明峻德)51 하여니여 화류사해(和流四海)52
 하신고(故)로 후생(後生)이 이르기를 요순지세(堯舜之世)
 좋다하고 불망천추(不忘千秋)53 송덕(頌德)일네 그후(後)로
 우탕문무(禹湯文武)54 일어나서 도류연원(道統淵源) 밝혔으되
 그중(中)에 주문왕(周文王)의 어진도덕(道德) 가장 더욱
 밝혔도다 태호복희(太昊伏羲) 선천팔괘(先天八卦)55 용마부도(龍馬負圖)
 살펴보고 하우씨(夏禹氏) 그린팔괘(八卦) 구미낙서(龜尾洛書)56
 후천수(後天數) 살피신후(後) 건곤지도(乾坤之道)57 정(定)한이치(理致)
 선후천(先後天)을 마련(磨鍊)하여 팔팔육십(八八六十) 사괘정(四卦定)58코
 삼백팔십(三百八十) 사효(四爻)뭇쳐 괘효단상(卦爻象象)59 베풀어서
 일일성출(一一成出) 문권(文卷)해서 주역(周易)이라 이름짓고
 이교후생(以教後生) 전(傳)히시니 문왕성덕(文王聖德) 지극(至極)하다
 사람사람 많은사람 학이시습(學而時習) 날노하며
 서로서로 권학(勸學)트니 천도석양(天道夕陽)60 때가온가
 윤회시운(輪回時運) 돌렀든가 빗긴벚 석양운(夕陽運)을
 공부자(孔夫子)가 받으신가 때운수(運數) 비(比)해보니
 천리(天理)따라 음기점점(陰氣漸漸)61 극성(極盛)하니 석양(夕陽)의
 가는일광(日光) 어찌주장(主張) 되올손가 때를 따라
 그런고(故)로 공부자지(孔夫子之) 도덕(道德)으로 불득기위(不得其位)
 하옵시고 시운세변(時運世變) 기운(氣運)따라 철환천하(轍環天下)62
 하옵시며 선천지수(先天之數) 비켜놓고 후천지수(後天之數)
 비켜낼제 위편삼절(韋編三絕)63 공부(工夫)하사 주역찬송(周易贊頌)
 하옵시고 자고성덕(自古聖德) 거울 할 제 조술요순(祖述堯舜)64
 하옵시며 헌장문무(憲章文武) 하여내어 계왕성개래학(繼往聖開來學)65
 하신고(故)로 공부자지(孔夫子之) 성덕(盛德)이 반유현어(反有賢於)66
 요순(堯舜)이라 지우금(至于今) 일렀나니 그러하나
 부자교훈(夫子教訓) 그 시절(時節)에 문하제자(門下弟子) 삼천지도(三千之徒)
 스승교훈(教訓) 효칙(效則)67해서 일일습도(一一習道) 하지마는
 신통륙예(身通六藝)68 몇몇인고 칠십이인(七十二人) 도통(道統)해서69
 스승도덕(道德) 찬송(讚誦)하고 선성도덕(先聖道德) 밝혔으되
 안자증자(顏子曾子) 도지연원(道之淵源) 종통(宗統)바다 나는후생(後生)
 교육(教育)터니 자사맹자(子思孟子) 그때시운(時運) 이어나서
 선성도법(先聖道法) 거울하여 스승교훈(教訓) 여행(施行)타가

도통연원(道統淵源) 자연(自然)되야 지금(至今)까지 유전(遺傳)하나
 천지도수(天地度數)70 상조지리(相助之理)71 주야상대(晝夜相代) 이치(理致)있어
 일정지도(日精之道)72 다했든가 월정지도(月精之道) 회복시(回復時)ㄴ가73
 천도신성(天道神聖) 마칠땐가 지도공고(地道功巧) 성왕시(盛旺時)ㄴ가
 술해지운(戊亥之運)74 진시황(秦始皇)75이 분시서(焚詩書)76 하온후(後)로
 성인도덕(聖人道德) 침미(寢微)하고 이단공교(異端功巧) 일어나서
 서로서로 숭상(崇尚)하니 그도역시(亦是) 때 운수(運數)라
 때 운수(運數) 기운(氣運)따라 월유초생(月惟初生) 서천(西天)되야
 차차차차(次次次次) 시명(始明)하나 후천팔괘(後天八卦) 구미낙서(龜尾洛書)
 응(應)하여서 역수지행(逆數之行)77 적실(的實)하다 그일저일
 살펴내어 이치이자(理致二字) 미뤄보니 천지일월(天地日月)
 조화(造化)따라 세간풍속(世間風俗) 번복(變復)일세 질대지수(迭代之數)78
 그런고(故)로 태고천황(太古天皇)79 순수팔괘(順數八卦) 시중시(時中時)에
 음양조화(陰陽造化) 오행정기(五行精氣) 양기(陽氣)모와 일광(日光)되고
 음기(陰氣)모와 월광(月光)되야 순수지리(順數之理) 일광(日光)이
 주장(主張)키로 일광(日光)따라 신성(神聖)나서 천지도수(天地度數)
 밝혀내어 도덕(道德)이라 이름하고 허다(許多)많은
 세상(世上)사람 갈아치기 위주(爲主)해서 순수천리(順數天理)
 시중(時中)하여 도통연원(道統淵源) 상전(相傳)트니 그운수(運數)가
 다했든가 하우씨(夏禹氏) 그린팔괘(八卦) 역수운(逆數運)이
 회복(回復)되야 월광(月光)이 주장(主張)한가 때 운수(運數)
 기운(氣運)따라 서천(西天)에 도(道)가나서 불선(佛仙)이라
 일흥하고 석가노자(釋伽老子)80 스승되야 시중(時中)따라
 여행(施行)해서 공교지리(功巧之理) 그가운데 연원도통(淵源道統)
 밝혀내어 상전수수(相傳授受) 전(傳)해와서 지금(至今)까지
 미류(彌留)하니 석가노자(釋伽老子) 말할진대 역수지운(逆數之運)
 그가운데 월광도수(月光度數) 기운(氣運)따라 시중(時中)하니
 월중음정(月中陰精) 대대(大碓)일세 그러나 십오야(十五夜)81
 밝은달이 추천(秋天)82의 정신(精神)모와 오정(午正)의
 뚜렷하여 세계(世界)가 광명(光明)되야 인심(人心)이
 구순(俱順)이네 그때가 어느땐고 당송지세(唐宋之世)83
 아닐런가 당송(唐宋)때 돌아와서 후천지수(後天之數)
 극성(極盛)하여 때 운수(運數) 밝히라고 제현(諸賢)이
 ?배출(輩出)할세 정주자(程朱子)84 먼저나서 자고성인(自古聖人)
 도통연원(道統淵源) 사서오경(四書五經) 허다서책(許多書冊)즉상수학(即嘗受學)
 공부(工夫)하와 숙독상미(熟讀嘗味)85 하다가서 일조황연(一朝恍然)86
 대오(大悟)하사 선성도법(先聖道法) 찬(贊)하실세 사서오경(四書五經)
 주(註)를내서 밝은도덕(道德) 더밝히어 사람사람

권학(勸學)하니 연원도통(淵源道統) 아니신가 그러그러
 시행(施行)87트니 월유점쇠(月惟漸衰) 차차(次次)되니 광명지기(光明之氣)
 완전(完全)할가 그후(後)로 월출동방(月出東方) 때가되니
 대명천자(大明天子) 주원장(朱元璋)88이 그운수(運數)를 받아나서
 입어남경(入於南京) 즉위(即位)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89 졸다하며
 오륜삼강(五倫三綱)90 말을 하여 치민치정(治民治政)하였으되
 천시(天時)또한 때가있어 허다세상(許多世上) 많은 사람
 학이시습(學而時習) 한다하되 공교지술(功巧之術) 좋아하고
 원형이정(元亨利貞) 몰랐으니 도덕군자(道德君子)91 있을손가
 도덕군자(道德君子) 안이나니 연원도통(淵源道統) 좋은법(法)을
 어느누가 밝히실고 그러그러 시중(時中)따라
 역수지운(逆數之運) 갑자지리(甲子之理) 술해운(戌亥運)이 거의된가
 순수지운(順數之運) 다시와서 육십갑자(六十甲子) 그가운데
 자축운(子丑運)92이 당(當)해운가 천일생수(天一生水)93 감중련(坎中連)94
 임자수(壬子水)95가 기세(氣勢)른가 방위(方位)쫓아 시중차(時中次)로
 교(教)가날제 천종교(天主教)라 일흥하고 예수가
 먼저나서 이생(生)일 던져두고 저생사(生事)를
 잘닥아서 천주당(天主堂)에 간다하고 사람사람
 갈아쳐서 편만천하(遍滿天下)96 거의되니 어찌천시(天時)
 아닐런가 일일궁구(一一窮究) 살펴보니 유도불도(儒道佛道)
 누천년(屢千年)에 운(運)이역시(亦是) 다했든가 도로선천(先天)
 회복(回復)되니 아극지운(炁極之運) 아닐런가 자방수기(子方水氣)97
 기운(氣運)따라 천주교(天主教)로 권학(勸學)하며 흑의흑복(黑衣黑服)98
 주장(主張)되야 개명(開明)이라 일흥하고99 번성(蕃盛)치만
 그리되는 때운수(運數)를 아는사람 몇몇인고
 천일생수(天一生水) 그가운데 수생목운(水生木運)100 또있어서
 윤회시운(輪回時運)101 차차(次次)오니 수기운수(水氣運數) 매양(每樣)일까
 미구불원(未久不遠)102 아닐런가 천시(天時)또한 때를따라
 목덕이왕(木德以王) 하여내어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시라고
 성운성덕(聖運聖德) 밝아오니 진목성(震木星)103이 승시(乘時)로다
 명천(明天)이 도덕인의(道德仁義) 베풀라고 아동방(我東方)에
 성인(聖人)낼때 아극지운(炁極之運) 그가운데 무왕불복(無往不復)104
 그이치(理致)를 수운선생(水雲先生) 먼저받아 자고성인(自古聖人)
 전수심법(傳授心法) 연원도통(淵源道統) 밝혀내어 일일수학(一一受學)
 근고(勤苦)타가 천조이응(天助地應) 때를타서105 자연심령(自然心靈)106
 대각(大覺)되야 역괘정수(易卦定數)107 살피시고 삼대경천(三代敬天)108
 좋은 예절(禮節) 일일효칙(一一效則)109 거울하야 법(法)을 정(定)코
 예(禮)를맺어 사람사람 권학(勸學)할 제 이십일자(二十一字)

주문(呪文)지어 전수심법(傳授心法)110 삼아두고 지성경천(至誠敬天)111
 헌성법(獻誠法)112은 효행이자(孝行二字) 붙여두고 선천후천(先天後天)
 역괘정수(易卦定數) 일일상고(一一詳考) 거울해서 선왕고예(先王古禮)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천심(天心) 회복(回復)하여 시중(時中)따라
 행(行)하자고 부야흥야(賦也興也)113 기록(記錄)할제 말로하며
 글로써서 일일성출(一一成出) 문권(文卷)되니 성경가사(聖經歌辭)114
 분명(分明)하다 수운선생(水雲先生) 높은 도덕(道德) 어진마음
 천지시운(天地時運) 조화(造化)따라 교법교도(教法教道) 하든이만
 목덕왕운(木德旺運) 미만고(未滿故)로 팔음세계(八陰世界)115 난동(亂動)되고
 현무지기(玄武之氣) 수기기운(水氣氣運) 남은고(故)로116 그운수(運數)
 기운(氣運)따라 세상풍속(世上風俗) 고이키로 음해자(陰害者)가
 수다(數多)해서 갑자풍파(甲子風波)117 보신후(後)에 천시(天時)를
 순종차(順從次)로 세념(世念)을 잊으시고 은일청산(隱逸青山)
 하옵시고 문하제자(門下弟子) 수다중(數多中)에 법헌(法軒)은
 교법교덕(教法教道) 힘을 쓰나 세계(世界)또한 혼몽시(昏濛時)라
 오는운수(運數) 모르고서 각자위심(各自爲心)118 그사람들
 말로 듣고 입도(入道)해서 입으로 축문(呪文)일너
 횡설수설(橫說豎說) 하는 말이 나도득도(得道) 너도득도(得道)
 맹상군(孟嘗君)119의 협객예(俠客禮)로 기세(氣勢)따라 좋아하며
 스승도법(道法) 무엇인지 교훈시행(教訓施行) 다버리고
 제망대로 난동(亂動)한들 천리광명(天理光明) 좋은운수(運數)
 때가 아직 미급(未及)하니 법헌(法軒)120인들 어찌하리
 하는 도덕(道理) 바이없어 세상음기(世上陰氣) 싸잡혀서
 갑오풍파(甲午風波)121 겪은 후(後)에 불행운종(不幸運終)수 하여있고
 아모아모는 시세(時勢)따라 여차여차(如此如此) 처변(處卞)하고
 청림선생(靑林先生)122 즉천지(則天地) 음양오행(陰陽五行) 정기(精氣)
 삼양칠덕(三陽七德)123 좋은 운수(運數) 수명우천(受命于天) 먼저하사
 스승교훈(教訓)124 봉명(奉命)하고 연원도통(淵源道統) 밝혀내어
 교민예악(教民禮樂)125 하자하고 이대기시(以待其時) 때가다려
 은거산림(隱居山林) 사십년(四十年)에 사훈성덕(師訓聖德) 거울히여
 지성경천(至誠敬天) 헌성(獻誠)하고126 안심정기(安心正氣) 수신(修身)하사127
 자고성인(自古聖人) 도통법(道統法)과 사사상수(師師相受) 전수심법(傳授心法)
 일일명찰(一一明察) 하옵시고 천지도래(天地圖來) 무궁기리(無窮其理)
 흥해(甬海)에 품어두고 일월정기(日月精氣) 조화(造化)바다
 광명지덕(光明之德) 베풀라고 스승교훈(教訓) 시행차(施行次)로
 교법교도(教法教道) 하시랄 제 천지절문(天地節文) 예(禮)를밝혀
 때를따라 전수심법(傳授心法) 다시정(定)코128 선천후천(先天後天)
 수질(數質)하사 역괘정수(易卦定數) 살피신후(後) 천도회복(天道回復)

다시되야 목덕이왕(木德以旺)129 때를 알고 용마부도(龍馬負圖)
 다시모셔 춘말하초(春末夏初) 운수(運數)부쳐 사람사람
 일깨시고 스승교훈(敎訓) 높은 도덕(道德) 대전가사(大全歌辭) 130
 전(傳)한문벌(文闕) 말도역시(亦是) 무궁(無窮)하고 글도역시(亦是)
 무궁(無窮)한데 무궁(無窮)한 그이치(理致)를 세세명찰(細細明察) 131
 하여내어 일일찬송(一一讚誦) 하옵시되 명명기덕(明明其德)
 더밝히어 글을 지며 말을 해서 천리고향(天理故鄉)
 나타내어 세세성출(細細成出) 문권(文卷)지사 교법교덕(敎法敎道)
 정(定)하노니 도로성경(聖經) 분명(分明)하다 청림선생(靑林先生)
 지은문벌(文闕) 다시 더욱 밝아있네 수운선생(水雲先生)
 지은문벌(文闕) 대전가사(大全歌辭) 이치(理致)미뤄 자고성인(自古聖人)
 도통연원(道統淵源) 천리(天理)따라 정(定)한운수(運數) 거울같이
 밝히시고 천지일월(天地日月) 조화(造化)살펴 오행정기(五行精氣)
 맑은기운(氣運) 왕생휴수(旺生休囚)132 그가운데 상생지리(相生之理)
 이치(理致)미뤄 오륜삼강(五倫三綱) 재차분별(第次分別) 절문(節文)밝혀
 전(傳)하시고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四時)미뤄 인의예지(仁義禮智)
 도덕(道德)으로 인화지단(人和之端) 베풀어서 학불염(學不厭)133을
 위주(爲主)삼고 교불권(敎不倦)134을 힘을 쓰게 정식(定式)하여
 전(傳)하시고 유래성인(由來聖人) 교훈법(敎訓法)을 효칙(效則)하스
 심학법(心學法)135을 연마(磨鍊)하여 축문(呪文)지어 전수(傳授)해서
 인개위지(人皆爲之) 심학(心學)136하여 안심정기(安心正氣) 수신(修身)하게
 밝혀두고 선왕고례(先王古禮) 굳게지켜 오는사람
 효유(曉諭)해서 윤회시운(輪回時運) 알게하니 오을시구(鳥乙矢口)
 오을시구(鳥乙矢口) 청림선생(靑林先生) 지은문벌(文闕) 수운선생(水雲先生)
 높은도덕(道德) 대전가사(大全歌辭) 찬(贊)하옵서 천리절문(天理節文)
 빛났으니 무궁무궁(無窮無窮) 오을시구(鳥乙矢口) 광명대제(廣明大濟)137
 뉘알소냐 광명천지(廣明天地) 예의(禮義)로다 나도 또한
 이세상(世上)에 스승문(門)에 수학(受學)하여 제자(弟子)라고
 일흠하고 심공(心工)한다 말을 하며 누년근고(屢年勤苦)
 일컬으되 도(道)와 덕(德)이 무엇인지 천동(天動)인지
 지동(地動)인지 동서남북(東西南北) 분별(分別)없이 천지성운(天地盛運)138
 이끌리어 남이하니 나도한다 그분수(分數)에
 비(比)했으니 그런 혼몽(昏夢) 또잇는가 그러그러
 하다가서 양위선생(兩位先生)139 교훈(敎訓)말씀 일일시행(一一施行)
 조심(操心)타가 재사심정(再思心定)140 다시하여 양위선생(兩位先生)
 지은문벌(文闕) 숙독상미(熟讀嘗味) 하자하고 지성(至誠)으로
 경천(敬天)하며 일심(一心)으로 공부(工夫)하와 거울같이
 밝히려다 꿈결 같은 태내소견(台乃所見) 여몽여각(如夢如覺)

깨달으니 천정지수(天定之數) 분명(分明)하다 하느님이
 정(定)하시니 무가내(無可柰)라141 할 길 없다 오을시구(鳥乙矢口)
 오을시구(鳥乙矢口) 태내신명(台乃身命) 오을시구(鳥乙矢口) 성인문하(聖人門下)
 수학(受學)하여 일심(一心)으로 공부(工夫)타가 태내신명(台乃身命)
 오을시구(鳥乙矢口) 이제와서 깨달으니 자고성인(自古聖人)
 도통연원(道統淵源) 수운선생(水雲先生) 적실(的實)하고 수운선생(水雲先生)
 도통연원(道統淵源) 청림선생(靑林先生) 분명(分明)해서 연원도통(淵源道統)
 차차(次次)되니 실구실구(矢口矢口) 오을시구(鳥乙矢口) 때운수(運數)
 오을시구(鳥乙矢口) 팔음(八陰)142은 쓰러지고 삼양(三陽)은
 밝아오니 연원도통(淵源道統) 다시 살펴 안심정기(安心正氣)
 수신(修身)하소 어화세상(御化世上) 만든 도유(道儒) 자세생각(仔細生覺)
 깨달으소 일문하지(一門下之) 제자(弟子)로서 안심정기(安心正氣)143
 공부(工夫)하여 연원도통(淵源道統) 밝히자고 누년근고(屢年勤苦)
 하지마는 도통연원(道統淵源) 이치(理致)미뤄 깨달으니
 몇몇인고 자세(仔細)살펴 요도(料度)하소 자고성인(自古聖人)
 말한대도 천리(天理)따라 성인(聖人)나사 천지도수(天地度數)
 먼저알고 순수천리(順隨天理) 하자하고 인사소위(人事所爲)
 베풀어서 사람사람 교육(教育)할제 도덕(道德)이라
 일흥하고 천리절문(天理節文) 밝혀내어 글을지머
 말을해서 일일기록(一一記錄) 성권(成卷)하소 현기(玄機)144따라
 포이교지(布而教之) 하실 때에 사사상수(師師相授) 예(禮)를정(定)코
 상전수수(相傳授受) 전(傳)해어서 사람사람 가르치되
 학이시습(學而時習) 하는 사람 문벌(文閥)보고 맘을비워
 문벌이치(文閥理致) 뜻을 알고 추호일리(秋毫一釐)145 여기 잡고
 문벌(文閥)티로 행(行)한사람 순수천리(順隨天理) 자연(自然)되니
 도로성인(聖人) 아니시며 도덕군자(道德君子) 아니신가
 이치이차(理致二字) 미뤄보니 천지도수(天地度數) 밝은 예절(禮節)
 인사소위(人事所爲) 기록(記錄)한바 문벌(文閥)이 연원(淵源)이오
 시중행이(時中行而) 도덕(道德)일세146 그런고(故)로 도지이치(道之理致)
 깨달은이 문벌(文閥)보고 추존(推尊)해서 성경(聖經)이라
 일흥하고 세상(世上)사람 근학(勸學)하며 그문벌(文閥)
 지은사람 추존(推尊)147하여 일컬으되 성인출세(聖人出世)
 하셨다고 하늘같이 우러러서 사제지의(師弟之誼)
 밝혀내어 선생지에(先生之禮) 정(定)해놓고 부모(父母)같이
 섬기나니 그런고(故)로 천지도수(天地度數) 먼저알고
 문권(文卷)에다 기록(記錄)하여 교법교도(教法教道) 하온 사람
 문벌이치(文閥理致) 기운(氣運)따라 선성(先聖)되고 그 문벌(文閥)의
 수학(受學)하여 학이지지(學而知之) 하온 사람 선성(先聖)이어

후성(後聖)일세 후성(後聖)이라 하는 사람 무얼보고
 세상(世上)사람 후성(後聖)이라 이름하노 다른 이치(理致)
 바이없다 선생문벌(先生文闕) 줄은 도덕(道德) 학이시습(學而時習)
 하다가서 도(道)와 덕(德)을 깨닫고서 선생문벌(先聖文闕)
 찬(贊)하여서 세상사람 일깨울 제 말로하며
 글로써서 선생(先聖)의 어진도덕(道德) 지분절해(支分節解)148
 밝히나니 도로성출(成出) 문권(文卷)일세 사문성덕(師門聖德)
 학습자(學習者)들 이글저글 살펴내어 도덕문벌(道德文闕)
 공부(工夫)타가 도통연원(道統淵源) 새로나서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신다고 서로서로 말을하며 그문벌(文闕)을
 추존(推尊)하여 성경(聖經)이라 이름하고 사람마도
 근학(勸學)하니 원亨利貞(元亨利貞) 이치(理致)미뤄 천리시중(天理時中)
 나타나서 지은문벌(文闕) 연원(淵源)일세 허다(許多)많은
 세상(世上)사람 사람대(對)해 연원(淵源)이며 이름보고
 도덕(道德)이며 모(貌)모(樣)보고 선생(先生)이며 권세(權勢)로서
 성인(聖人)이며 간교(奸巧)로써 군자(君子)될까 태고천지(太古天地)
 시판후(始判後)149에 사정사유(四正四維) 정(定)해놓고 순환지리(循環之理)
 기운(氣運)따라 세상사(世上事)가 그런고(故)로 많고 많은
 사람중(中)에 성인군자(聖人君子) 따로 있고 허다(許多)많은
 서책중(書冊中)에 성경현전(聖經賢傳) 따로 있어 연원도통(淵源道統)
 말을해서 지금(至今)까지 전(傳)했나니 세상이치(世上理致)
 그럴기로 자고성인(自古聖人) 많이나서 연원도통(淵源道統)
 말했으되 사서삼경(四書三經) 연원(淵源)일세 천리시중(天理時中)
 때를따라 사서삼경(四書三經) 지은문벌(文闕) 상전수수(相傳授受)
 교육(教育)한바 없거드면 무엇으로써 빙거(憑據)150해서
 성인(聖人)이라 추존(推尊)하며 선생(先生)이라 말을하여
 도덕이차(道德二字) 일컬어서 연원이차(淵源二字) 말할손가
 기연불연(其然不然)151 비유(譬喻)해서 일일생각(一一生覺) 깨달으니
 세상서책(世上書冊) 많다하되 수도수신(修道修身) 하는사람
 고금성인(古今聖人) 지은문벌(文闕) 문벌(文闕)마도 연원(淵源)일세
 연원(淵源)살펴 도통(道統)해서 스승공경(恭敬) 하였어라
 스승공경(恭敬) 하자하니 남의제자(弟子) 되온 사람
 예절(禮節)인들 없을소며 스승마음 광애(廣愛)하스
 갈아치기 위주(爲主)시니 스승마음 효칙(效則)하여
 높은 도덕(道德) 빛난문벌(文闕) 사람사람 권학(勸學)하여
 포덕천하(布德天下)152 그 가운데 사람마도 군자(君子)되면
 스승도덕(道德) 빛날테니 스승공경(恭敬) 그아니며
 순수천리(順隨天理) 아닐손가 수덕이왕(水德以王) 차세상(此世上)에

무와불복(無往不復) 그운수(運數)를 수운선생(水雲先生) 먼저 받아
 자고성인(自古聖人) 도통법(道統法) 연원(淵源)살펴 이치(理致)알고
 대전가사(大全歌辭) 글을 지어 교이행지(教而行之)153 전(傳)하시고
 청림선생(靑林先生) 수학(受學)하스 스승교훈(教訓) 봉승(奉承)하와
 대전가사(大全歌辭) 찬(贊)한문벌(文闕)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여내어
 사람사람 교훈(教訓)하니 일일생각(一一生覺) 하여보세
 자고유래(自古由來) 차차차차(次次次次) 내려오며 스승스승
 전(傳)한문벌(文闕) 문벌(文闕)마도 차차차차(次次次次) 연원도통(淵源道統)
 전(傳)하였네 도지이치(道之理致) 그러하니 문벌(文闕)따라
 연원(淵源)정(定)코 연원(淵源)따라 도덕(道德)비고 도덕(道德)따라
 스승정(定)해 도지근원(道之根源) 밝혀보세 도지근원(道之根源)
 그럴건만 많고많은 수다도유(數多道儒) 그런 이치(理致)
 아는 도유(道儒) 몇몇인고 아는 도유(道儒) 알지마는
 그런 이치(理致) 모른도유(道儒) 그런 혼몽(昏夢) 또있는가
 혼몽세계(昏夢世界)154 저도유(道儒)들 어찌아니 애달할가
 스승문(門)에 수학(受學)하여 수련성심(修煉誠心)155 공부(工夫)힘써
 연원도통(淵源道統) 밝힌다고 말은 비록 그러하나
 연원(淵源)이 무엇인지 두서분별(頭緒分別)156 모르고서
 기세(氣勢)보고 추존(推尊)하기 간교(奸巧)보고 찬송(讚誦)하기
 음흉(陰兇)따라 복록(福祿)빌기 아당(阿黨)157한데 맘굽히기
 어진사람 미워하여 무근설화(無根說話) 158지어내기
 흥포지심(兇暴之心)159 품어두고 모든 친구(親舊) 유인(誘引)하기
 은원(恩怨)160없이 지낸 사람 그중(中)에 싸잡혀서
 서로서로 혐의(嫌疑)맺기 천정지수(天定之數) 재복록(福祿)을
 안지키고 남의복록(福祿) 탐욕(貪慾)하기 수도수신(修道修身)
 공부(工夫)없이 자칭연원(自稱淵源) 자세(藉勢)161하고 안하무인(眼下無人)162
 숭상(崇尚)하기 의리이자(義理二字) 다 버리고 배은망덕(背恩忘德)
 일을삼기 도덕문(道德門)163에 상관(相關)없는 공명부귀(功名富貴)
 말을해서 우매지인(愚昧之人) 유인(誘引)하기 스승교훈(教訓)
 전(傳)한문벌(文闕) 도덕인의(道德仁義) 뜻 모르고 자행자지(自行自止)164
 날로하여 사람사람 많은 사람 오는 운수(運數)
 앞길막기 방자(放恣)한맘 품어두고 되는데로
 자존(自尊)하니 애달하다 애달하다 그런 사람
 애달하다 도유(道儒)라고 일홍하며 그와 같이
 불측(不測)하니165 어찌그리 혼몽(昏夢)인고 애달하다
 애달(愛怛)하다 연원연원(淵源淵源) 말을 하나 사람 몸이
 연원(淵源)이며 도통도통(道統道統) 말을 하나 사람 몸이
 도통(道統)인가 그럴 사람 있지마는 많고 많은

세상(世上)사람 사람마도 다그러며 수다서책(數多書冊)
 많다한들 서책(書冊)마도 성경(聖經)일까 도지이치(道之理致)
 천리(天理)따라 정(定)한운수(運數) 이와 같이 밝건마는
 어찌그리 혼몽(昏夢)인고 다시생각 깨달아서
 연원도통(淵源道統) 자세(仔細)살펴 개과천선(改過遷善) 하여 서로
 스승공경(恭敬) 하였어라 자고유래(自古由來) 차(此)해 바도
 연원(淵源)없는 성인(聖人)없고 도덕(道德)없는 군자(君子)없디
 애달하다 애달하다 세상풍속(世上風俗) 애달하다
 그도역시(亦是) 시운(時運)인가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恠疾運數)166
 다시개벽(開闢)167 때가오니 때를 따라 음기(陰氣)쫓아
 쇠(衰)하라고 그런 사람 그러한가 인심풍속(人心風俗)
 괴이(恠異)하다 일문하지(一門下之) 제자(弟子)로서 일월(日月)같이
 밝은 도덕(道德) 수덕수신(修道修身) 아니하고 어찌그리
 매몰(埋沒)168한고 각각명운(各各明運) 분명(分明)하다 그런 사람
 그러하나 어진사람 있거들랑 도통연원(道統淵源)
 자세(仔細)살펴 안심안도(安心安道) 수신(修身)하소 나의교훈(教訓)
 헛말인가 자세생각(仔細生覺) 깨달아서 스승교훈(教訓)
 밝혀내어 안심안도(安心安道) 수신(修身)하면 효박(洵薄)169한
 이세상(世上)에 허다(許多)한 무수질병(無數疾病) 물약자효(勿藥自效)170
 될거시니 지상신선(地上神仙) 그 아닌가 스승스승
 연원(淵源)찾아 교훈(教訓)대로 행(行)한사람 이와같이
 되련이와 그리시행(施行) 아닌 사람 닦은 도덕(道德)
 없었으니 부지하경(不知何境)171 면(免)할손가 구변구복(九變九復)172
 차천지(此天地)에 시운세변(時運世變) 요도(料度)하여 오는 운수(運數)
 수질(數質)하니 다시개벽(開闢) 불원(不遠)이라 천일생수(天一生水)
 창일(漲溢)173하니 견해174역시(乾亥亦是) 창일(漲溢)일세 건수생수(乾水生水)175
 창일(漲溢)되니 수중세계(水中世界) 그아니며 진방(震方)176에
 도든일광(日光) 차차차차(次次次次) 밝아오나 팔음(八陰)의
 남은(陰氣) 새벽안개 아침이슬 우심(尤甚)한데
 허령지기(虛靈之氣)177 이매망량(魑魅魍魎)178서출(晝出)하나 서출망량(晝出魍魎)
 계뉴아리 망량지귀(魍魎之鬼) 괴이(恠異)하다 음기(陰氣)로서
 생긴 몸이 일광소식(日光消息) 모르고서 새벽안개
 운무중(雲霧中)에 남은음기(陰氣) 기운(氣運)따라 사람사람
 속이라고 죽기로써 난동(亂動)하니 속을 사람
 있지만은 도덕군자(道德君子) 속일손가 도덕군자(道德君子)
 못 속이고 제기운(氣運)만 쓰러져서 양적(痕跡)없이
 되지만은 수도수신(修道修身) 못한 사람 그음기(陰氣)에
 싸잡혀서 거의거의 속을테니 초장의침(草長衣沾)

그아닌가 기험(奇險)하다179 기험(奇險)하다 오는 운수(運數)
 기험(奇險)하다 수중세계(水中世界) 되는때에 괴질악질(恠疾惡疾)
 일어나고 음기사기(陰氣邪氣) 병침(並侵)하여 두서(頭緒)없이
 길을 막고 풍진진애(風塵塵埃)180 일어나서 인심혼몽(人心昏夢)
 시길테니 혼몽천지(昏夢天地) 그 아닌가 혼몽천지(昏夢天地)
 그운수(運數)를 어느 누가 잘 살피어 일월정기(日月精氣)
 조화(造化)따라 실수(失數)없이 면(免)해볼까 면(免)할사람
 많지마는 도덕(道德)없이 면(免)할손가 인자무적(仁者無敵)
 도덕(道德)닭어 도덕(道德)으로 면(免)할테니 나의교훈(教訓)
 의심(疑心)말고 스승스승 연원(淵源)찾아 교훈(教訓)대로
 시행(施行)해서 안심정기(安心正氣) 수신(修身)하라 안심정기(安心正氣)
 수신(修身)하면 천조지응(天助地應) 감응(感應)하사 지상신선(地上神仙)181
 되오리라 지상신선(地上神仙) 되거되면 호작선연(好作仙緣)
 그아닌가 분분천하(紛紛天下) 요란(擾亂)한데 호작선연(好作仙緣)182
 되었으니 안기생적(安期生赤) 송자(松子)를 부러할가
 이와같이 되올운수(運數) 아는사람 몇몇인고
 아는사람 알았거든 모른사람 권학(勸學)해서
 스승교훈(教訓) 거울하여 인자무적(仁者無敵) 닭게하소
 인자무적(仁者無敵) 높은 도덕(道德) 사람마도 다 닭으면
 요순세계(堯舜世界) 다를손가 요순세계(堯舜世界) 일반(一般)되면
 스승스승 졸으려만 그런운수(運數) 모르고서
 요악(妖惡)한 저 사람들 음흉간교(陰兇奸巧) 겸(兼)하여서
 기심기천(欺心欺天)183 하느라고 무식도통(無識道統) 자금(自矜)하니184
 가소절창(可笑絕唱) 아닐런가185 나는 도시(都是) 너의 소견(所見)
 모를너라 간경(肝經)이 불실(不實)해서 쓸개없어
 그러한가 오행정기(五行精氣)186 오장(五腸)187없어 그러한가
 허욕(虛慾)이 눈을 가려 귀가 막혀 그러한가
 음양조화(陰陽造化) 받은 몸이 약기(陽氣)는 쓰러지고
 음기(陰氣)만 남아있어 실진(失真)되야 그러한가
 나는 도시(都是)188 모를너라 다시생각(生覺) 깨달아서
 무식도통(無識道統) 자금(自矜)마라 무식도통(無識道統) 자금(自矜)타가
 미래지사(未來之事) 같잖으면 너의운수(運數) 가련(可憐)하여
 부지하경(不知何境) 될 것이니 자작지열(自作之孽)189 네아니나
 애달하다 애달하다 너의 운수(運數) 그리될 줄
 모르고서 스승교훈(教訓) 다 어기고 사사욕심(私邪慾心)
 못이기어 제망대로 행(行)한사람 또한 역시(亦是)
 애달하다 쓸데없는 부귀(富貴)에다 뜻을 두고
 행실(行實)될 줄 몰랐으니 도덕이자(道德二字) 어찌아리

도덕이자(道德二字) 몰랐으니 스승제자(弟子) 무엇인고
 애달하다 애달하다 너의 사람 애달하다
 사문성덕(師門聖德) 공부(工夫)하여 도덕이자(道德二字) 밝힌다고
 말은 비록 그러하나 사기허욕(邪氣虛慾) 못 이기어
 스승도덕(道德) 더럽히니 난도자(亂道者)가 네아니며
 도통연원(道統淵源) 모르고서 스승팔며 연원(淵源)팔어
 자칭연원(自稱淵源) 자세(藉勢)해서 사람사람 속였으니
 문장군(蚊將軍)190이 네아니며 스승스승 정(定)한예절(禮節)
 천지절문(天地節文) 응(應)하여서 정(定)한것인데 일일시행(一一施行)
 아니하고 네맘대로 행(行)했으니 난법도(亂法者)가
 네아니냐 난법난도(亂法亂道) 하는사람 나는도시(都是)
 모를너라 자고유래(自古由來) 전(傳)한말에 부자지도(夫子之道)로
 반해부자(反害夫子)라 전(傳)한말이 지금(至今)까지 있지마는
 고금이치(古今理致) 일반(一般)이니 그런이치(理致) 없을손가
 예로부터 호사다마(好事多魔)191 이치(理致)있어 그런이치(理致)
 있는비니 현숙(賢淑)한 제군자(諸君子)는 자세(仔細)살펴
 가즈셔라 가즈셔라 가즈셔라 원형이정(元亨利貞)192
 가즈셔라 천지반복(天地反覆) 차세상(此世上)의 많고 많은
 세상(世上)사람 성쇠지운(盛衰之運) 부동고(不同故)193로 때운수(運數)
 기험(奇險)하여 문장군(蚊將軍)도 많을게요 난도자(亂道者)도
 많을게니 전후좌우(前後左右) 잘살피어 원형리정(元亨利貞)
 가즈셔라 자고성문(自古聖門) 살펴내어 도통연원(道統淵源)
 본다해도 사욕(私慾)으로 연원(淵源)되며 음흉(陰兇)으로
 도통(道統)했다 예로좃아 수덕문(修德門)에 부귀(富貴)는
 불가고(不可考)라 그런고(故)로 공문제자(孔門弟子) 삼천중(三千中)에
 안자(顏子)또한 극빈(極貧)하스 일단식(一簞食) 일표음(一瓢飲)을
 면(免)하지 못하스되 수덕수신(修道修身) 굳게지켜
 불개기락(不改其樂) 하신고(故)로 어진마음 높은도덕(道德)
 천리(天理)따라 성공(成功)되스 남의스승 자연(自然)되야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오니 그런일을 본다해도
 수도수신(修道修身) 하는 사람 부귀(富貴)에다 뜻을 돌고
 쓸데없이 세간풍속(世間風俗) 싸잡혀서 부귀공명(富貴功名)
 뜻을 둔들 하느님이 사람낼 때 사주팔자(四柱八字)194
 정(定)한바를 네가다시 어길소냐 어기는수
 없을게요 고치는수 없을게니 사람사람
 많은 사람 나의교훈(教訓) 생각(生覺)하여 다시깨쳐
 정심(定心)해서 천상부귀(天上富貴) 닦아보세 하느님이
 주신부귀(富貴) 사람사람 많은 사람 다같이

주옵신바 호생지심(好生之心)195 아니신가 호생지심(好生之心)
 분명(分明)하니 심다망실(心多忘失)196 자내(子乃)사람 구침고해(久沉苦海)197
 그만 놓고 호생지심(好生之心) 다시 찾아 지성(至誠)으로
 닦아되면 이복기초(以復其初)198 자연(自然)되어 자고성신(自古聖神)
 도통연원(道統淵源) 천리절문(天理節文) 전(傳)한문벌(文闕) 보는 대로
 다알게요 오륜삼강(五倫三綱) 예의염치(禮義廉恥) 거울같이
 다시밝혀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오리니 인의예지(仁義禮智)
 못행(行)할가 인의예지(仁義禮智) 차서(次序)알고 실수(失數)없이
 행(行)하오면 도덕군자(道德君子) 아니신가 도덕군자(道德君子)
 되거되면 천상부귀(天上富貴) 그아닌가 여천지(與天地)
 합기덕여(合其德與) 일월합기(日月合其) 명여귀신(明與鬼神) 합기길흉(合其吉凶)
 무궁조화(無窮造化) 높은도덕(道德) 흥해(胷海)에 품어두고
 임의용지(任意用之)199 풀어내어 사람사람 가르쳐서
 순수천리(順隨天理) 하거되면 연원도통(淵源道統) 아니신가
 연원도통(淵源道統) 되거되면 스승이자(二字) 높아있네
 스승이자(二字) 높았으니 성인성자(聖人聖字) 아니신가
 성인성자(聖人聖字) 바탕되니 한량(限量)없는 그도덕(道德)을
 무궁무궁(無窮無窮) 전(傳)해어서 여천지(與天地)로 상존(相存)되니
 그런부귀(富貴) 다시있나 하느님이 사람사람
 주신부귀(富貴) 이와 같이 크건마는 세상(世上)사람
 괴이(恠異)하다 명천(明天)이 주신부귀(富貴) 원형이정(元亨利貞)
 큰부귀(富貴)는 사람마도 마다하고 사사욕심(私邪慾心)
 못이기어 세간부귀(世間富貴) 탐(貪)하다가 천성지품(天性之稟)
 다일고서 자작지열(自作之孽) 지은 죄(罪)로 서로서로
 혐의(嫌疑)맺어 양급기신(殃及其身) 하는구나 애달하다
 애달하다 그런사람 애달하다 성인문(聖人門)의
 수학(受學)하기는 스승교훈(教訓) 거울하여 맘을 배고
 실(實)배서 어진군자(君子) 되라했지 그른마음
 개과(改過)않고 되는대로 난잡(亂雜)해서 초로(草露)200같은
 일시부귀(一時富貴) 탐(貪)하자고 성인문(聖人門)의 수학(受學)했나
 나는 도시(都是) 모를너라 시운세변(時運世變) 말한대도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恠疾運數) 천하인심(天下人心) 공동(共動)되어야
 괴질악질(恠疾惡疾) 일어나서 다시개벽(開闢) 할터이니
 자내(子乃)사람 생각(生覺)하소 어찌하여 그운수(運數)를
 모면(謀免)하고 살아날가 살아날바 생각(生覺)다
 못하거든 어진선생(先生) 찾아들어 도덕인의(道德仁義)
 힘을 쓰소 도덕인의(道德仁義) 힘써배면 인자무적(仁者無敵)
 조화(造化)로써 천리간섭(天理干涉) 자연(自然)되어야 무위이화(無爲而化)201

모면(謀免)해서 지상신선(地上神仙) 되오리니 그만겁운(劫運)202
 염려(念慮)할가 그는또한 그러하나 지각(知覺)없다
 지각(知覺)없다 태내(台乃)사람 지각(知覺)없다 문장군백(蚊將軍白)
 주대적(晝大賊) 있을줄을 정녕(丁寧)이 알지마는
 윤회시운(輪回時運) 그러하니 때운수(運數)를 어이하리
 때운수(運數) 그러하나 그런운수(運數) 던져두고
 천지일월(天地日月) 조화(造化)따라 광명지덕(廣明之德)203 베풀어서
 차차차차(次次次次) 갈아치면 금수(禽獸)같은 세상(世上)사람
 어렵푸시 깨달아서 무왕불득(無往不復) 다될테니
 천우신조(天佑神助)204 아니시며 무위이화(無爲而化) 그아닌가
 순환지리(循環之理)205 그가운데 윤회시운(輪回時運) 그러하니
 현숙(賢淑)한 제군(諸君)들은 의아지심(疑訝之心) 두지말고
 천리(天理)따라 시행(施行)해서 차차차차(次次次次) 가즈셔라
 그는 또한 그러하나 인심풍속(人心風俗) 살펴보니
 때운수(運數) 가관(可觀)일세 허다(許多)많은 세상(世上)사람
 다각각(各各) 이름하되 스승문(門)의 수학(受學)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206 한다하고 말은 비록 그러하나
 도지근원(道之根源) 모르고서 두서(頭緒)없이 가다가서
 전후좌우(前後左右) 살피잡고 초상지풍(草上之風) 거의되니
 애달하다 그런사람 스승교훈(教訓) 전(傳)한문벌(文閥)
 수심정기(修心正氣) 하여내어 연원도통(淵源道統) 하라하고
 일일효유(一一曉諭) 하였건만 무얼보고 수도(修道)했나
 애달하다 애달하다 그런사람 애달하다
 누년근고(屢年勤苦) 하다가서 초상지풍(草上之風)207 되단말가
 초상지풍(草上之風) 되는사람 그도역시(亦是) 운수(運數)지만
 운수(運數)로만 전여밀고 살피지 않고 되올손가
 그런고(故)로 고성인(古聖人) 이른 말씀 시전(詩傳)에
 벌가장(伐柯章)을 선생(先生)께서 비유(譬喻)하사 이른 말씀
 생각(生覺)고 생각(生覺)하면 초상지풍(草上之風) 있을손가
 그런고(故)로 세상사(世上事)가 난지이유(難之而有) 이(易)하고208
 이지이난(易之而難)209 이건만 그런 이치(理致) 모르고서
 살피지 않고 가다가서 초상지풍(草上之風) 되었으니
 자작지열(自作之孽) 그아닌가 자작지열(自作之孽) 되었으니
 누구보고 원망(怨望)할가 원망(怨望)할곳 없지마는
 당초(當初)에 먹은 생각(生覺) 스승문(門)의 수학(受學)해서
 인의도덕(仁義道德) 밝혀내어 도덕군자(道德君子) 되라했지
 살피지 않고 심량(深量)없이 가다가서 초상지풍(草上之風)
 되라든가 이치이자(理致二字) 그러하니 다시생각(生覺)

깨달아서 도지연원(道之淵源) 밝혀내어 좋은 운수(運數)
받게하소 나의교훈(敎訓) 위기(違棄)210하고 심량(深量)없이
가다가는 말래지사(末來之事) 같잖아서 부지하경(不知何境)
되오리니 부디 생각(生覺) 깨달아서 순수천리(順隨天理)
시중(時中)하소 이와 같이 권학(勸學)지만 많고 많은
도유중(道儒中)에 몇몇 사람 깨달아서 초상지풍(草上之風)
벗어날가 그도역시(亦是) 운수(運數)지만 운수(運數)만
믿지말고 수심정기(修心正氣) 단속(團束)하고 원형이정(元亨利貞)
잘 밝히어 도지연원(道之淵源) 잃지마소 도지연원(道之淵源)
잃치 않으면 선생(先生)뵙기 쉬울테니 부디부디
생각(生覺)해서 허다(許多)많은 도유중(道儒中)에 난법자(亂法者)도
많을게요 초상지풍(草上之風) 많을게니 일일명찰(一一明察)
하여내어 그운수(運數)에 범(犯)치말고 도지연원(道之淵源)
찾아내어 안심정기(安心正氣) 수학(受學)해서 연원도통(淵源道統)211
하여보세

[각주]

- 1) 성경현전(聖經賢傳) : 성현들이 쓴 여러 가지 책을 이름. 본래 경(經)은 성인의 말씀을 적은 책이고, 전(傳)은 ‘경’에 대하여 풀이한 책임.
- 2) 수심정기(修心正氣) :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함. 「수덕문」에 “인의예지 선성지소교 수심정기 유아지괘정(仁義禮智 先聖之所教 修心正氣 惟我之更定) 인의예지는 성인이신 공자께서 가르치신 것이요,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내가(수운 최제우) 다시 정한 것이다.”고 함. 이는 옛날 공자는 인의예지를 행하고 경천명 순천리(敬天命順天理) 하라고 가르쳤으나, 사람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각하여 기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마음부터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의예지를 권하여도 되지 않는 것임. 그러므로 수운 최제우가 다시 정하여 ‘수심정기(修心正氣)하는 것부터 가르친 것임.
- 3) 자세(仔細) :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분명함.
- 4) 자고유래(自古由來) : 예로부터 사물의 연유하여 온 바.
- 5) 사문성덕(師門聖德) : 우리 스승님(수운 최제우)의 높고 성스러운 덕행.
- 6) 사사상수(師師相受) : 스승에게서 스승으로 서로 전수됨.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도법(道法)만 바르게 깨달으면 도의 연원이 끊기지 않고 스스로 이어지는 것을 말함.
- 7) 도지연원(道之淵源) : 도(道)가 비롯된 근원. 유학에서 보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한 심법(心法)이 ‘윤집궐중(允執厥中)’인데, 순임금은 여기에 ‘유정(惟精)’과 ‘유일(惟一)’을 추가하여 ‘유정유일 윤집궐중’을 우임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순임금이 다시 세 마디 말을 더 보탠 것은 요임금의 한 마디 말씀을 밝힌 것이니 이렇게 하니 ‘윤집궐중’의 뜻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요임금에게서 비롯된 도학이 성인을 거쳐가며 보태어져 더욱 분명해 졌음.
- 8) 도덕군자(道德君子) : 군자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많이 써 온 말임. 이는 학식과 덕이 높고 행실이 어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겼음. 『동경대전(東經大全)』 「포덕문(布德文)」에서도 “경천명이 순천리자(敬天命而順天理者) 즉, 하늘의 명을 공경하고 하늘의 이치에 순히 따르는 사람”을 군자라고 말하고 있음. 또 동양화에서 대나무의 고결함과 청결함을 군자가 지닌다하여 대나무를 군자라 하고, 연꽃과 국화를 역시 군자의 꽃이라고도 하여, ‘매화 . 난초 . 국화 . 대나무를 사군자(四君子)라 일컬음. 또한 동경대전』의 “녹죽지룩룩예 위군자지비속(綠竹之綠綠兮 爲君子之非俗) 즉, 푸른대의 푸르고 푸름이여 군자의 속되지 않음이 된 것이구나.”라는 글도 강직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군자를 대나무에 비유하고 있음.
- 9) 요도(料度) : 헤아려.
- 10) 도야덕야(道也德也) : 도(道)란 하늘이 내려준 성품을 그대로 지극히 선하게 간직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함. 즉,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함이 도(道)요, 이웃을 사랑하고 만 백성을 사랑하며 무릇 생명을 애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道)임. 이처럼 도(道)는 자신에게서 비롯하여 만물에 두루 미치는 것이므로, 공자는 도(道)를 ‘구제기(求諸己), 반신(反身)’이라 하여 자신에게서부터 찾았음. 그리고 덕(德)이란 도(道)를 행하는 행위임.
- 11) 천지상경(天地常經) : 천지에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 12) 고금지통(古今之統) : 옛날과 지금의 이어짐.
- 13) 삼재지덕(三才之德) : 하늘 . 땅 . 사람의 덕.
- 14) 순환지리(循環之理) :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반복된다는 이

치.

15) 천지절문(天地節文) : 절문(節文)은 사리(事理) 즉, 일의 이치에 따라 정한 조리(條理 - 일을 해나가는 도리)를 말함.

16) 오행지리(五行之理) : 오행(五行 - 수 . 화 . 목 . 금 . 토)의 이치. 오행의 첫째는 물(水)이고, 둘째는 불(火)이고, 셋째는 나무(木)이고, 넷째는 쇠(金)이고, 다섯째는 흙(土)이다. 물은 적시고 내려가는 것이고, 불은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나무는 굽고 곧은 것이고, 쇠는 따르고 바뀌는 것이고, 흙은 심고 거두는 것이다. 즉, 적시고 내려가는 것은 짠 것, 타고 올라가는 것은 쓴 것, 굽고 곧은 것은 신 것, 따르고 변화하는 것은 매운 것, 심고 거두는 것은 단 것을 만든다. 이 오행 중에도 토(土)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토는 만물을 소생시키며 그중 곡식을 만든다. 이 곡식은 또한 사람을 소생시키며, 생명을 영위(英偉)하게 하는 중요한 것임. 오행(五行)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 홍범(洪範)」의 글에 있음. - “오행 일왈 수이왈화삼왈목사왈금오왈토 수왈윤하 화왈염상 목왈곡직 금왈중혁 토원가색 윤하작함 염상작고 곡직작산 중혁작신 가색작감(五行 一曰水二曰火三曰木四曰金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17) 지공무사(至公無私) :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한울님의 마음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하여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우주만상에 모두 복록(福祿)을 주신다. 그러나 이를 받는 사람이 잘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임. 곧 한울님이 우주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모든 은덕을 주어 화생(化生)하고 또 화육(化育)하여 살아가게 한다는 뜻임.

18) 하도낙서(河圖洛書) :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하도(河圖)는 복희씨 때에 황하에서 길이 여덟 척 이 넘는 용마(龍馬)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서, 『주역(周易)』 팔괘(八卦)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낙서(洛書)는 하나라 우왕의 구년 치수(治水) 때에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귀(神龜)의 등에 있었다는 글로서 『서경(書經)』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근원이 됨.

19) 팔괘정수(八卦定數) : 팔괘와 대정수. ‘대정수’는 음양의 변화를 낳고 귀신의 작용을 일으키는 수.

20) 일일시중(一一時中) : 시중(時中)은 때에 따라 중용(中庸)을 알맞게 행하는 것.

21) 양의사상(兩儀四像) : 양의(兩儀)는 음과 양 또는 천지(天地)를 말하고, 사상(四像)은 이에서 나온 태음(太陰), 태양(太陽), 소음(小陰), 소양(小陽) 등을 말함.

22) 품기(稟氣) : 기운을 받아서.

23) 혼몽세계(昏濛世界) : 혼(昏)은 어두움, 저녁 무렵, 밤을 뜻하며, 몽(濛)은 가랑비오다, 흐릿하다는 뜻임. 즉, 어둠이 자욱히 내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때로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그러므로 혼몽세계는 미래를 점칠 수 없는 혼란한 세계를 뜻함.

24) 구침고해(久沉苦海) : 오랫동안 고통의 바다에 잠김.

25) 무극대도(無極大道) : 무한한 진리. 곧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무극의 끝이 없는 큰 도(道)를 이룸. 무극은 동양철학에서 우주의 근원인 태극의 처음 상태를 이르는 말.

26) 천리시운(天理時運) : 윤회시운(輪回時運)을 말함. 즉,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운수. 여기서 윤회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生)이 반복된다고 하는 사상으로, 산스크리트의 삼사라(samsara)를 번역한 말임.

27) 수명우천(受命于天) : 한울님에게 명령을 받아.

28) 천정(天定) : 한울님이 정한 운수임.

29) 작지사(作之師) : 스승을 냄.

- 30) 작지제(作之弟) : 제자를 냄.
- 31) 사문성덕(師門聖德) : 우리 스승님(수운 최제우)의 높고 성스러운 덕행.
- 32) 천지도수(天地度數) : 천지(天地)의 운행을 측정함. 천체 운행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를 도(度)라고 함.
- 33) 한사(限死) : 죽기까지 한정함. 죽을 힘으로.
- 34) 저훼(沮毀) : 막고 상하게 함.
- 35) 부지하경(不知何境) : 자신이 놓여진 상황(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
- 36) 말래지사(未來之事) : 끝에 가서 오는 일 또는 나중의 결과를 뜻함.
- 37) 천정지수(天定之數) : 하늘이 정한 운수.
- 38) 변복차(變復次) : 변화하고 회복되는 순서.
- 39) 이교후생(以教後生) :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가르침.
- 40) 시중(時中) : 바른 마음가짐으로 상황에 알맞게 실천하는 것.
- 41) 대강조백(大綱皁白) : 조백은 흑색과 백색 그리고 검은 것과 흰 것을 말하는데, 전(轉)하여 옳고 그른 것, 선악, 정사를 뜻하기도 함. 여기서는 진리와 방편으로 볼 수 있음.
- 42) 천지시판(天地始判) : 천지가 처음으로 나누어지다. 태극에서 음양이 생겨남. 곧 분열과 결합의 작용으로 생성과 변화가 일어남을 말함/
- 43) 사정사유(四正四維) : ‘사정’은 자(子) . 묘(卯) . 오(午) . 유(酉) 등의 방(方)을 말하고, ‘사유’는 건(乾-서북) . 곤(坤-서남) . 간(艮-동북) . 손(巽-동남)을 말함. 따라서 사정사유는 역의 이치가 됨. 천지 변화의 틀을 짠 것으로, 팔방(八方)을 말함.
- 44) 목덕이왕(木德以王) : 목덕의 왕. 오행설에 의하면,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행의 운행에 의해 생육되었다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태고의 왕이 된 사람이 교대로 대(代)를 계승한 것은 오행의 운행과 같은 것으로 봄. 그래서 왕자의 덕을 오행에 배정하여 목덕(木德)화덕(火德)금덕(金德)수덕(水德)의 순서로 계승한 것으로 봄. 맨 처음 수인씨(燧人氏)를 계승해서 천위(天位)를 이은 분이 복희씨이므로 ‘목덕의 왕’이라 한 것임.
- 45) 교화인민(敎和人民) :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킴.
- 46) 용마부도(龍馬負圖) : 복희씨 때 황하에서 길이 8척이 넘는 ‘용마’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이 ‘하도’인데 주역의 팔괘의 근원이 됨.
- 47) 팔괘정수(八卦定數) : 팔괘정수(八卦定數)
- 48) 오정시(午丁時) : 병오정미(丙午丁未)의 때를 말함.
- 49) 천도양명(天道陽明) : 천도는 양이 먼저 일어남.
- 50) 당요우순(唐堯虞舜) :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인 요(堯)와 순(舜)을 말함. 요임금은 당(唐) 또는 도당씨(陶唐氏)라고 하며, 순임금은 우(虞) 또는 유우씨(有虞氏)라고도 함.
- 51) 극명준덕(克明峻德) : 능히 밝혀 덕을 높임.
- 52) 화류사해(和流四海) : 온 세상에 교화를 흘려 조화롭게 함.
- 53) 불망천추(不忘千秋) : 천년이 흘러도 잊지 않음.
- 54) 우탕문무(禹湯文武) : 우(禹)임금은 요 . 순 두 임금을 섬기면서 하(夏)나라를 창업하고 홍수를 다스림. 탕(湯)임금은 걸왕이 폭정을 하니 ‘순천응인(順天應人)’하여 하나라를 멸하고 은나라를 세움. 문왕과 무왕은 은나라 말기에 주(紂)가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져 포정을 일삼을 때, 은나라의 서쪽의

기산(岐山) 일대를 다스리면서 노인을 공경하고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린 임금임.

55) 태호복희(太昊伏羲) 선천팔괘(先天八卦) : 복희씨 때의 하도팔괘를 선천팔괘라 함. 복희씨는 우주 만물이 오직 1에서 10까지의 10수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법하여 팔괘의 획을 그었다고 함.

56) 구미낙서(龜尾洛書) : 하도는 선천, 낙서는 후천이라고 함. 또 64괘로 보면 하도는 상경, 낙서는 하경에 해당함. 즉, 하도는 하늘이고 낙서는 땅임. 그래서 하수를 은하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십간이 나오고, 낙서는 땅이기 때문에 십이지가 나오는 것임. 하도는 수가 1에서 10이지만 낙서는 1에서 9이다.

57) 건곤지도(乾坤之道) : 만물(萬物)을 생성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사물(事物)에서는 음양(陰陽), 인사(人事)에서는 건곤(乾坤)으로 쓰임.

58) 팔팔육십(八八六十) 사괘정(四卦定) : 주역 팔괘를 여덟 번 겹쳐 만든 예순 네 개의 괘.

59) 괘효단상(卦爻象) : 괘(卦)는 복희씨가 만들었다는 글자. 한 괘에 삼효(三爻)를 음양(陰陽)으로 나누어서 8괘가 되고, 8괘를 거듭하여 64괘가 된다. 이것으로 천지간을 나타내며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판단함. 효(爻)는 효의 발동에 따라 일어나는 음양변화를 ‘본받는다’는 뜻에서 본받을 효(效)의 뜻이 있음. 단(象)은 문왕이 괘의 재질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것이 괘사인데, 이 괘사를 단(象)이라 함. 단은 ‘돼지어금니 단’, ‘꿍을 단’, ‘판단할 단’ 등으로 쓰임. 상(象)은 공자가 괘효의 상을 보고 설명한 상전(象傳)으로서, 십익(十翼) 중의 하나임.

60) 천도석양(天道夕陽) : 후천에서 선천으로 기울어질 무렵. 변화의 시점을 말함.

61) 음기점점(陰氣漸漸) : 변화의 시점에서 석양의 기운이니 음기가 많아짐.

62) 철환천하(轍環天下) :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님. 공자가 교화를 위하여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는데서 유래한 말.

63) 위편삼절(韋編三絕) : 공자(孔子)가 주역(周易)을 너무 애독하여 그 책을 매었던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고사(古事)에서 유래한 말임. 즉, 책을 좋아하여 많이 읽는 것을 일컬음.

64) 조술요순(祖述堯舜) : 『중용』 30장에 “중니 조술요순 현장문무 상률천시 하습수토(仲尼 祖述堯舜 憲章文武 上律天時 下襲水土)-공자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조종으로 이어받았고 문왕과 무왕의 법도를 밝혔으며, 위로는 천시(자연)를 그대로 법으로 본받으시고 아래로는 물과 흙의 이치를 좇았다.”하였다. 공자는 요순(堯舜)의 ‘조술자(祖述者)란 말임.

65) 계왕성개래학(繼往聖開來學) : 이미 가신 성인을 계승하여 새로운 학문을 엮.

66) 반유현어(反有賢於) : 도리어 어짐이 있음.

67) 효칙(效則) : 본받아 법으로 삼음.

68) 신통육예(身通六藝) :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부분을 말함. 예(禮) . 악(樂) . 사(射) . 어(御) . 서(書) . 수(數)를 신기롭게 통달하여 걸림이 없음.

69) 칠십이인(七十二人) 도통(道統)해서 : 공자의 삼천제자 중 칠십이 인이 도통했다는 말임.

70) 천지도수(天地度數) : 하늘과 땅의 운동을 측정함. 천체 운행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를 도(度)라고 함.

71) 상조지리(相助之理) : 음과 양이 서로 돕는 기운 따라 만물이 형성되는데, 만물이 활동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음과 양이라는 두 기운이고, 이것은 상승의 작용을 하면서 상호 보완하게 됨.

72) 일정지도(日精之道) : 해의 정기를 말함.

73) 일정지도(日精之道)다했든가 월정지도(月精之道)회복시(回復時)가 : 선천이 다하고 후천의 시대

가 돌아옴을 말함.

74) 술해지운(戌亥之運) : 갑술을해(甲戌乙亥)를 말하는데, 술해(戌亥)는 천문(天門)이요, 술(戌)은 화
 룯 불이다. 갑을목(甲乙木)에 불이 붙어서 하늘 높이 불꽃이 치솟으니, 마치 산불이 난 것과 같다는 말.

75) 진시황(秦始皇) : 중국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BC.259~210).

76) 분시서(焚詩書) : 진시황이 행한 ‘분서(焚書)’를 말함.

77) 역수지행(逆數之行) : 미래의 운수를 미리 눈치 채는 행동.

78) 질대지수(迭代之數) :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운수.

79) 태고천황(太古天皇) :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맨 처음 천자의 이름인데, 복희씨를 말함.

80) 석가노자(釋伽老子) : 동학의 입장에서 석가와 노자를 음의 기운이 생하는 후천의 학으로 바라보고
 있음.

81) 십오야(十五夜) : 보름.

82) 추천(秋天) : 사계절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눌 때 가을은 후천에 해당함. 후천개벽의 때에는 세상이
 뒤집히는 혼란이 생김.

83) 당송지세(唐宋之世) : 당나라와 송나라 때를 후천으로 봄.

84) 정주자(程朱子) : 정호(程顥) . 정이(程頤) 형제와 주희(朱熹)를 말함.

85) 숙독상미(熟讀嘗味) : 익숙하도록 자세히 읽어서 참 맛을 봄.

86) 일조황연(一朝恍然) : 아침에 몽롱한 중에.

87) 시행(施行) : 베풀어 행함.

88) 대명천자(大明天子) 주원장(朱元璋) : 중국 한민족의 주원장이 원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세움.
 17대 277년(1368~1644)만에 이자성에게 망함.

89) 인의예지(仁義禮智) :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그 본성 즉, 인성에 있어서 약자와 불쌍
 한 사람에 대해서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인 인(仁)을 베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義)를 지키며, 윗
 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예(禮)를 갖추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분명히 솔직하게 가리는
 분별(分別)의 지(智)가 있어야 함.

90) 오륜삼강(五倫三綱) : 삼강과 오륜. 삼강은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도리로서, 임금과 신
 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말함. 그리고 오륜은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인륜으로서, 군신(君臣)사이의 의리, 부자(父子)사이의 친애(親愛), 부부(夫婦)사이의 분별
 (分別), 장유(長幼)사이의 차서(次序), 붕우(朋友)사이의 신의(信義)를 말함.

91) 도덕군자(道德君子) : 군자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많이 써 온 말로써, 학식과 덕이 높고 행실이
 어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겼음. 동양화에서 대나무의 고결함과 청결함을 군자가 지닌다하여
 대나무를 군자라 하고, 연꽃과 국화를 또한 군자의 꽃이라고 함.

92) 자축운(子丑運) : 다시 선천의 시대로 돌아옴. ‘천개어자(天開於子)’즉, 하늘이 자(子)에서 열리고,
 ‘지개어축(地開於丑)’ 즉, 땅이 축에서 열린다고 하였으니, 하나의 양이 처음으로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일양시생(一陽始生)’하여 열매를 맺는 시기임.

93) 천일생수(天一生水) : 하늘이 먼저 물을 낳으니.

94) 감중련(坎中連) : 주역 팔괘의 여섯 번째 괘. 감(坎)은 밝은 양이 어두운 음(陰) 사이에 빠져들어 험
 난함을 겪는 궤상이지만, 중심이 양(陽)이므로 건실하여 물 흐르듯 잘 이겨낸다는 뜻도 있음. 오행의
 첫머리를 물이 차지하고, 동학에서도 만물의 근원을 물로 봄.

- 95) 임자수(壬子水) : ‘임(壬)’은 십간(十干)으로 오행의 수(水)에 해당하며, 모든 생물이 임(壬)의 수액으로 포태한다는 뜻임. ‘자(子)’는 십이지(十二支)로 역시 수(水)에 해당함. ‘임자(壬子)’는 방위로 북쪽임. 하나의 양(陽)이 땅속에서 꿈틀대며 조용히 새끼치기를 시작하여 열매를 맺는 운임.
- 96) 편만천하(遍滿天下) : 온 세상에 두루 천주교가 퍼짐.
- 97) 자방수기(子方水氣) : 자(子)의 방향과 수(水)의 기운. 방위로는 북쪽, 기운으로는 물의 기운이고 생동을 준비하는 단계임.
- 98) 흑의흑복(黑衣黑服) : 오행으로 ‘수(水)’는 방위가 북쪽이며, 색깔로는 흑색에 해당함으로 천주교의 운이 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흑색이라 말함.
- 99) 개명(開明)이라 일흠하고 : 문명을 연다고 이름하고.
- 100) 수생목운(水生木運) : 물(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속에 고이게 되어 나무(木)를 자라게 해 주니 상생(相生)의 기운(氣運)이 있음. 천주교의 기운이 동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거름이 된다는 말.
- 101) 윤회시운(輪回時運) :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운수. 윤회(輪回)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生)이 반복된다고 하는 사상.
- 102) 미구불원(未久不遠) : 오래지 않아서 멀지 않아 운(運)이 다할 것임. 수(水)의 운이 다하면 목(木)의 운이 올 것임.
- 103) 진목성(震木星) : 동방의 별을 말함.
- 104) 무왕불복(無往不復) : 가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음.
- 105) 천조이응(天助地應) 때를 타서 : 하늘이 돕고 땅이 응하는 때를 타서(천지가 개벽하는 때, 선천의 세상이 열리는 때).
- 106) 자연심령(自然心靈) : 자연스러운 마음. 대개 ‘영(靈)’은 마음속에서 만물을 생성(生成). 화육(化育)하는 원리가 되는 것을 말함.
- 107) 역괘정수(易卦定數) : 주역 괘의 대정수. 대정수는 음양(陰陽)의 변화를 낳고 귀신의 작용을 일으키는 수. 주역에서 수(數)를 들어 미루어 판단하는 방법.
- 108) 삼대경천(三代敬天) : 하은주(夏殷周) 삼대 때 하늘을 공경함.
- 109) 일일효칙(一一效則) : 하나하나 본받아서.
- 110) 전수심법(傳授心法) : 심법을 전수받다. 한울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심법. 즉, 동학의 기본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임.
- 111) 지성경천(至誠敬天) : 지극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하늘을 공경함.
- 112) 헌성법(獻誠法) : 정성을 드리는 법.
- 113) 부야흥야(賦也興也) : 『시경(시경)』 육의 중 부(賦). 비(比). 흥(興) 체를 말하는 것. 부(賦)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을 말하고, 비(比)는 비유하는 것으로 ‘~는 ~같다’는 표현임. 흥(興)은 작가의 주관적인 연상 작용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 흥(興)은 시의 내용과 논리적인 연결을 객관적으로 맺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114) 성경가사(聖經歌辭) : 동학가사인 『용담유사』를 말함.
- 115) 팔음세계(八陰世界) : 하도 선천팔괘의 목(木 3, 8)의 8을 말함.
- 116) 현무지기(玄武之氣)수기기운(水氣氣運)남은고(故)로 : 오행으로 북쪽에 해당하는 동물이 ‘현무’임. 따라서 북쪽은 수(水)이니 북쪽의 물의 기운. 즉, 겨울의 음(陰)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음.
- 117) 갑자풍파(甲子風波) : 1864년(고종 1년) 동학 교조 최제우가 대구에서 사형을 당한 때.

- 118) 각자위심(各自爲心) : 각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
- 119) 맹상군(孟嘗君) : 맹상군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의 정승으로, 친구를 좋아하여 식객이 늘 사천 명이나 되었다고 함.
- 120) 법헌(法軒) : 최시형(1827~1897)을 말함. 최시형은 최제우에게 직접 북접(北接)의 도주(道主)를 이어 받았음.
- 121) 갑오풍파(甲午風波) : 갑오년(1894) 1월에 전봉준이 전라북도 고부에서 동학혁명을 일으킨 것을 말함.
- 122) 청림선생(靑林先生) : 동학교(東學敎)를 창설한 김주희를 말함.
- 123) 삼양칠덕(三陽七德) : ‘삼양(三陽)’은 화창한 봄날, 삼춘(三春), 역(易)의 괘(卦)의 세 양효(陽爻), 수족(手足)에 있다는 태양(太陽), 소양(小陽), 양명(陽明). 여기서는 역(易)의 괘(卦)를 말함.
- 124) 스승교훈(敎訓) : 수운 최제우의 교훈.
- 125) 교민예악(敎民禮樂) : 백성들에게 예(禮)와 악(樂)을 가르치고.
- 126) 지성경천(至誠敬天) 헌성(獻誠)하고 : 정성을 지극히 하여 한울님을 공경하여 정성을 드리고.
- 127) 안심정기(安心正氣) 수신(修身)하사 :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몸을 닦아서.
- 128) 정(定)코 : ‘정(定)’한다는 말은 내 덕을 한울님 덕에 합하고, 내 마음을 한울님 마음에 합하는 것으로 ‘인내천(인내천)’의 요체가 되는 중요한 말임.
- 129) 목덕이왕(木德以旺) : 봄기운이 왕성함. 즉, 동학의 이상향인 지상천국이 될 수 있는 운수가 왕성함.
- 130) 대전가사(大全歌辭) :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말함.
- 131) 세세명찰(細細明察) : 자세하고도 밝게 살펴.
- 132) 왕생휴수(旺生休囚) : 천지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남과 쉬는 것.
- 133) 학불염(學不厭) : 남에게 배울 때는 싫증을 내지 않고.
- 134) 교불권(敎不倦) : 남을 가르칠 때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음.
- 135) 심학법(心學法) : 마음을 공부하는 법.
- 136) 심학(心學) : 마음의 본체를 밝히고 그 밝혀진 마음의 실체에 따라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학문임.
- 137) 광명대제(廣明大濟) : 넓게 밝히고, 크게 가지런히 함.
- 138) 천지성운(天地盛運) : 천지의 왕성한 운.
- 139) 양위선생(兩位先生) : 수운과 청림선생.
- 140) 재사심정(再思心定) : 두 번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라.
- 141) 무가내(無可柰)라 : 어찌 할 수가 없구나.
- 142) 팔음(八陰) : 하도 선천 팔괘의 목(木3, 8)의 8을 말함. ‘8’은 음(陰)이고, 천간으로 ‘을(乙)’임. 수(水)에 있던 음의 기운이 남아 있음을 말함.
- 143) 안심정기(安心正氣) :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함. 즉, 한울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 자신의 올바른 마음을 바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144) 현기(玄機) : ‘현묘한 기틀’을 말함. 이것은 한울님의 뜻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깊고 오묘한 이치를 말함.
- 145) 추호일리(秋毫一釐) : 한 터럭의 끝. 아주 가늠을 비유함.
- 146) 시중행이(時中行而) 도덕(道德)일세 : 바른 마음가짐으로 상황에 알맞게 실천하는 것이 도덕임.

- 147) 추존(推尊) : 추앙하여 존경함.
- 148) 지분절해(支分節解) : 글의 내용을 세밀히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함.
- 149) 시판후(始判後) : 비로소 나누어진 후.
- 150) 빙거(憑據) :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를 댐.
- 151) 기연불연(其然不然) : 그러함과 그렇지 아니함. 즉, ‘기연(其然)’이 사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을 말한다면, ‘불연(不然)’은 사물이 생겨나게 된 원리와 근원적인 이치를 말함. 그러므로 사물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져 있는 부분 모두를 깊이 연구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치를 헤아리는 좋은 방법이 됨을 말한 것임.
- 152) 포덕천하(布德天下) : 온 세상에 한울님의 덕화를 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인 한울님을 깨닫고 천리와 천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룩하는 것을 뜻함.
- 153) 교이행지(敎而行之) : 가르치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행하여.
- 154) 혼몽세계(昏夢世界) : 어둡고 꿈결 같은 세상.
- 155) 수련성심(修煉誠心) :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닦아서.
- 156) 두서분별(頭緒分別) : 일의 차례나 갈피에 대해 분별없이.
- 157) 아당(阿黨) : 간사하고 공정하지 못함. (알랑거림)
- 158) 무근설화(無根說話) : 근거 없는 말. 헛소문.
- 159) 흥포지심(兇暴之心) : 흉악하고 포악한 마음.
- 160) 은원(恩怨) : 은혜와 원수.
- 161) 자세(藉勢) : 자기의 세력이나 남의 세력을 믿고 의지함.
- 162) 안하무인(眼下無人) :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방자함.
- 163) 도덕문(道德門) : 경주 현곡 동학의 발산지인 용담정을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문. 동학의 가르침을 말함.
- 164) 자행자지(自行自止) :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서 마음대로 함.
- 165) 불측(不測)하니 : 헤아릴 수가 없으니.
- 166) 괴질운수(恠疾運數) : 괴이한 질병(여기서는 콜레라)이 가득한 운수.
- 167) 다시개벽(開闢) : 다시 하늘과 땅이 비로소 열림.
- 168) 매몰(埋沒) : 어둡고 모름.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이 독하고 쌀쌀함.
- 169) 효박(洵薄) : 어지럽고 경박함.
- 170) 무수질병(無數疾病) 물약자효(勿藥自效) : 셀 수 없이 많은 질병에도 약이 없어도 스스로 효과가 있음.
- 171) 부지하경(不知何境) : 자신이 놓여진 상황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
- 172) 구변구복(九變九復) : 천지가 아홉 번 변하고 아홉 번 뒤집어짐.
- 173) 창일(漲溢) : 물이 불어 넘침.
- 174) 건해(乾亥) : ‘해(亥)’는 12지지의 마지막임.
- 175) 건수생수(乾水生水) : 건수가 생수가 되니.
- 176) 진방(震方) : 동방.
- 177) 허령지기(虛靈之氣) : 잡된 생각 없이 마음이 신령한 기운.
- 178) 이매망량(魑魅魍魎) : 여러 가지 도깨비. 어처구니 없이 허무맹랑한 사람을 얹잡아서 일컫는 말.

- 179) 기험(奇險)하다 : 괴이하고 위태롭다.
- 180) 풍진진애(風塵塵埃) : 편안하지 않은 어지러운 세상.
- 181) 지상신선(地上神仙) : 사람사는 세상에 있다는 상상의 신선.
- 182) 호작선연(好作仙緣) : 신선이 될 연분을 잘 맺음.
- 183) 기심기천(欺心欺天) : 자신을 속이고 하늘을 속임.
- 184) 무식도통(無識道統) 자긍(自矜)하니 : 도통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니.
- 185) 가소절창(可笑絕唱) 아닐런가 : 여기서 창(唱)은 장(腸)의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음. ‘너무 우스워서 창자가 끊어진다’의 뜻임.
- 186) 오행정기(五行精氣) : 만물에 갖추어져 있는 오행의 순수한 기운.
- 187) 오장(五腸) : 사람의 오장(五臟)도 오행(五行)으로 말미암는다. 물(水)은 아래로 내려가서 신장(腎臟)이 되고, 화(火)는 위로 올라가서 심장(心腸)이 되고, 나무(木)는 간장(肝腸)이 되고, 쇠(金) 폐장(肺腸)이 되고, 토(土)는 비장(脾臟)이 됨. 이는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 속에 고여서 생성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양(陽)이며, 땅에 고여 물이 되는 것은 음(陰)이다. 즉, 양으로 생(生)하여 음이 되는 것임. 이것이 바로 생성(生)의 이치임.
- 188) 도시(都是) : 도무지.
- 189) 자작지열(自作之孽) : 자기 스스로 지은 죄.
- 190) 문장군(蚊將軍) : 모기장군이란 뜻. 즉 ‘빈정거리다’는 의미도 있음. .
- 191) 호사다마(好事多魔) :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음.
- 192) 원형이정(元亨利貞) : 사물(事物)의 근본 되는 도리로서, 만물(萬物)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고 삶을 이루고 완성된다는 뜻. 즉 하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을 이르는 말임. 원(元)은 만물의 시(始-시초)로 봄(春)에 속하고 인(仁)이며, 형(亨)은 만물의 장(長-자람)으로 여름(夏)에 속하고 예(禮)이며, 이(利)는 만물의 수(遂-이루어짐)로 가을(秋)에 속하고 의(義)이며, 정(貞)은 만물의 성(成-거둠)으로 겨울(冬)에 속하며 지(智)가 됨.
- 193) 성쇠지운(盛衰之運) 부동고(不同故) : 만물은 모두 성쇠의 운이 같지 않음.
- 194) 사주팔자(四柱八字) : 사주의 간지가 되는 여덟 글자. 즉 타고난 운수.
- 195) 호생지심(好生之心) : 자애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마음.
- 196) 심다망실(心多忘失) : 마음에 잊고 잃음이 많음.
- 197) 구침고해(久沉苦海) : 오랫동안 고통의 바다에 잠김.
- 198) 이복기초(以復其初) : 처음을 회복함.
- 199) 임의용지(任意用之) : 마음대로 그것을 씀.
- 200) 초로(草露) : 풀 위의 이슬
- 201) 무위이화(無爲而化) :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것
- 202) 겁운(劫運) : 큰액을 당한 운수
- 203) 광명지덕(廣明之德) : 넓고 밝은 덕
- 204)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이 돕고 신령이 보호함
- 205) 순환지리(循環之理) :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환 반복된다는 이치.
- 206) 개과천선(改過遷善) : 허물을 고치어 착하게 됨.
- 207) 초상지풍(草上之風) : 풀 위로 부는 바람. 여기서 ‘풀’은 ‘도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바

람'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비유함.

208) 난지이유(難之而有) 이(易)하고 : 어렵다가도 쉬움이 있고.

209) 이지이난(易之而難) : 쉽다가도 어렵게 됨.

210) 위기(違棄) : 어기고 버림.

211) 연원도통(淵源道統) : 도(道)의 근원을 이루는 것을 연원(淵源)이라 하고, 이 연원에서부터 전수 되는 계통을 '도통(道統)'이라고 함.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